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40호 【루계 제25549호】 주체106(2017)년 2월 9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려명거리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려명거리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려명거리건설을 통하여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국력을 남김없이 시위할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첨단생물공학기술교류사 부원 최철민은 착공의 첫날부터 전투현장에 달려나가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일도 하고 많은 후방물자도 안겨주어 그들의 전투적사기를 북돋아주었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한은희, 영흥무역국 산하단위 로동자 김기남도 불붙는 공사장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면서 로력적, 물질적지원사업에 앞장섰다.

조선혁명의 려명이 밝아오는 뜻깊은 곳에 값높은 삶의 자욱을 새겨갈 열의밑에 김만유병원 의사 오학봉, 류경건설관리국 산하단위 김명화는 건설자들에 대한 현장치료활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그들의 생활에 뜨거운 정을 기울였다.

로동당시대의 선경거리를 함께 일떠세우는 심정으로 경공업성 산하단위 로동자 무금화는 공사초기부터 야간지원돌격대활동을 벌리면서 성의있는 후방사업으로 돌격대원들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높여주었다.

내각사무국 산하단위 로동자 윤명희, 상업성 산하단위 부원 최영금, 평양시국토환경보호관리국 산하단위 부원 김선영, 평양면옥 로동자 김경란도 하루일을 끝마치고 전투장에 찾아가 자재운반과 지대정리 등을 스스로 맡아하면서 헌신적으로 일하고있다.

지난 기간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기 위한 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평천구역 봉학동 101인민반 반장 김춘옥은 려명거리건설에도 아낌없는 지성을 바쳐가고있다.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는 시대의 벅찬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평양청년털차상업관리소 로동자 손춘화, 남포항 로동자 전윤옥은 많은 생활필수품과 후방물자들을 지원하여 공사속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하였다.

원산시상업관리소 로동자 최설희, 조선국제체육려행사 안내통역원 임성국은 가정에서 성의껏 마련한 물자들을 돌격대원들에게 안겨주어 그들을 만리마속도창조에로 고무추동하였다.

룡림군인민위원회 부부장 리계춘의 가정과 평안남도혁명사적관리국 산하단위 로동자 박옥희, 평성시 평성동 62인민반 문혜경은 려명거리를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우고있는 건설자들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였다.

려명거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는데 작은 힘이나마 이바지할 심정으로 만수대예술단 연주가 림철준, 평양콤퓨터기술대학 류철훈도 공사를 돕는 일을 스스로 찾아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전민총돌격전에서 강원도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헌신해갈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고 신영애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교수, 박사인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신영애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7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뜻깊은 2월 8일을 맞으며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평양 2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백두산혁명강군의 자랑찬 행로우에 아로새겨진 뜻깊은 2월 8일을 맞으며 온 나라 천만군민은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이시며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으로는 선군의 총대로 혁명승리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창조하시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지켜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대하가 굽이쳤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과 꽃다발들이 진정되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우리 혁명무력발전의 최전성기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절세위인들의 동상에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인민무력성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을 찾은 인민군지휘성원들을 비롯한 인민군장병들은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정력적인 선군령도로 인민군대를 필승불패의 최정예혁명강군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김일성정치대학, 인민보안성, 만수대창작사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들에도 다함없는 경모의 물결이 끝없이 흘렀다.

각지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 청소년학생들도 자기 고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맹세를 다짐하였다.

광명성절경축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광명성절경축준비위원회가 1월 22일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들로 핀란드조선협회 위원장 뻬까 꼬뜨까싸리와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국제비서 유하 끼엑씨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광명성절경축준비위원회가 1월 25일 노르웨이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노르웨이공산당 외스트폴드주위원회 위원장 다그 노룸이, 부위원장으로 외스트폴드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리따 베르게르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탄생 75돐경축준비위원회가 1월 30일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협회 위원장 드미뜨리 꼬스뗀꼬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자

중앙연구토론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더욱 빛내여나가기 위한 중앙연구토론회가 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동지와 중앙과 평양시안의 당, 행정, 근로단체, 과학, 교육, 문학예술, 출판보도, 당간부양성기관, 혁명사적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에 대하여 깊이있게 해설론증한 론문들을 김일성고급당학교 교장 명선영,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 태형철, 사회과학원 원장 리혜정, 인민경제대학 총장 허광일 등이 발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의 위업에 충실한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니고 선군길을 쉼없이 이어가시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주신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수령이시다》라는 제목에서 토론자는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빨찌산의 아들, 백두광명성으로 높이 솟아오르시여 장장 반세기이상 우리 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신 불세출의 위인의 한생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개척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의 력사가 이 땅우에 세세년년 줄기차게 흐르도록 하시였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가 영원한 김일성동지의 당과 국가, 군대로 강화발전되고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이 일떠서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빛내이시며 헌신과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의 결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의 미래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안으시고 사회주의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담보해주시였다.

대를 이어 계속되는 혁명위업의 합법칙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혁명의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한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령도체계를 확립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천리혜안의 선견지명과 불멸의 혁명업적이 있어 사회주의위업의 계승완성에서 근본핵으로 되는 령도의 계승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고 조선혁명은 영원히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불변궤도를 따라 노도처럼 전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군사강국, 핵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최대의 애국업적》이라는 제목에서 토론자는 오늘 우리 조국의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올라선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초인간적인 애국헌신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해설론증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우리의 혁명무력을 비상히 강화하시고 핵보유의 대업을 성취하시여 주체조선을 세계적인 군사강국, 핵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시였다.

불면불휴의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모든 인민군군인들을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충실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일당백의 싸움군, 현대전의 능수로 키우시고 전체 인민을 조국수호의 강위력한 력량으로 준비시켜주시였다.

전군김일성주의화의 기치밑에 인민군대를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우리 식의 전략전술과 전법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최정예강군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시였으며 민간무력의 전투력을 비상히 높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우리 조국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일떠설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제의 핵을 정의의 핵억제력으로 짓부셔버릴 단호한 용단을 내리시고 험로역경의 고비들을 넘으시며 핵보유의 민족사적대업을 이룩하시였다.

토론자는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군사강국, 핵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애국업적이 있고 인민군대와 함께 전체 인민이 조국수호의 성새를 이루고있기에 이 땅우에는 앞으로도 영원히 주체의 사회주의기발이 높이 휘날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천만군민을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간직한 정신력의 강자들로 키워주신 위대한 령도자》라는 제목에서 토론자는 다음과 같이 론증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심어주기 위한 사상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시였으며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숭고한 혁명정신을 본보기로 내세우고 그것을 일반화하도록 하시여 천만군민을 정신력의 강자들로 억세게 키워주시였다.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사상전을 드세차게 들이대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중시의 령도가 있어 천만의 심장마다에는 사회주의사상만이 꽉 들어차게 되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류례없는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주체의 한길로만 나갈수 있었다.

혁명령도의 전기간 시대정신의 창조와 일반화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적군인정신과 그 구현인 강계정신을 창조하도록 이끌어주시여 김일성민족의 정신력을 비상히 강화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시고 키워주신 핵무기보다도 더 위력한 불굴의 정신력, 이것은 주체조선의 제일가는 국력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영원히 백전백승의 한길로 힘있게 떠미는 원동력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평양정신, 백두산영웅청년정신, 강원도정신이 련이어 창조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이 영원히 정신력의 강자로 살며 투쟁해나가고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시대는 어버이장군님의 애국헌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는 제목의 토론에서는 이 땅우에 펼쳐진 민족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생을 초불처럼 불태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의 결정체라는데 대하여 언급되였다.

토론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치시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고귀한 밑천들을 마련해놓으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생사존망의 위기에 처하였던 시련의 시기에 강인담대한 애국의지로 내놓으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구상은 가장 혁명적이며 현실적인 로선과 전략, 혁명적인 방도들로서 그 승리가 확고히 담보된 백승의 설계도이다.

미래에 바쳐진 삶이 가장 아름다운것이라는 숭고한 인생관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대고조전투장들을 찾고 또 찾으시며 과학기술강국, 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하나하나 마련해주시였다.

천만고생을 락으로 달게 여기시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애국헌신의 장정을 쉼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령도가 있었기에 이 땅우에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장엄한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는것은 우리 인민의 가장 숭고한 혁명적의무》라는 제목에서 토론자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은 우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이 나아갈 진로가 뚜렷이 명시되여있는 강령적지침이고 혁명가들의 삶과 투쟁의 교과서이며 최악의 역경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만능의 백과전서이다.

온 나라 천만군민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를 충정다해 받드는데 있다는것을 억척불변의 신념으로 새겨안고 삶의 순간순간을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정신,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만리마시대의 본보기정신인 강원도정신을 철저히 구현하여 뜻깊은 올해에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그 어느때보다도 높여야 한다.

일군들은 모든 사업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로 확고히 지향시키며 그 정형을 늘 료해하고 끝까지 집행해나가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대중을 수령의 유훈관철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토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펼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감으로써 이 땅우에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동지애

인민의 리상과 꿈을 눈부시게 꽃피우는 희한한 사변들로 충만된 이 땅에 민족최대의 명절 광명성절이 다가오고있다.

간절한 그리움에 불타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가슴에 위대한 장군님의 해빛같은 미소, 자애에 넘치신 음성이 뜨겁게 안겨드는 2월.

혁명의 천만리에 풍상고초를 다 겪으시며 주체혁명을 오직 백전백승에로 이끄신 만고의 위인이시고 혁명의 대원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그이와 사상과 뜻도 숨결도 하나가 되어 정과 열을 나누며 난관과 시련을 함께 헤친 우리 천만군민은 그이를 모시고 살며 혁명한 년대들에 마음을 숭엄히 얹고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생애에서 가장 큰 감회가 무엇이였으며 그이께서 우리 혁명과 인민에게 심어주신 영원한 승리의 원천이 무엇이였는가에 대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더듬어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지 4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의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랑하는 전사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였다.

고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그들 한명한명을 뜻과 생사를 같이하는 혁명동지로 키우시고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길에서 생의 자욱을 뚜렷이 남기도록 정과 열을 부어주시던 잊지 못할 나날을 송영히 더듬어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교시하시였다.

지나온 혁명의 길을 돌이켜보면 추억에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가운데서도 제일 감회깊이 추억되는것이 난관과 시련속에서도 변함없이 당을 따라온 혁명동지들에 대한 추억이다. 나의 동지들 가운데는 오랜 혁명가들도 항일혁명투사들도 있고 당의 기초축성시기의 충직한 일군들도 있으며 고난의 행군시기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의 용사들도 있다!

혁명동지애를 떠나서는 우리 당의 존재와 강화발전에 대해서도, 우리의 일심단결에 대해서도 말할수 없고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년대와 세기를 넘으며 당을 진심으로 받들어온 사랑하는 혁명동지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추억은 참으로 뜨거웠다.

그날의 위대한 장군님의 가슴속에 간직된 동지애의 무한대한 세계의 일단이나마 펼치고저 우리 실은 붓을 들었다.

동지적단결의 전성기

1970년대는 주체혁명사에 분수령으로 되는 경이적인 년대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력사와 혁명발전에서 책임적인 시대를 함께 걸어온 일군들을 당의 기초축성시기의 일군들이라고 값높이 내세워주시며 두고두고 뜨겁게 추억하시였다.

고귀한 그 부름과 추억에 주체적당건설의 초행길을 함께 걸은 동지들에 대한 우리 장군님의 다함없는 정과 열이 함축되어있다.

돌이켜보면 우리 당의 기초축성은 동지적단결로 시작되였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백두산야에서 꽃핀 혁명적동지애를 제일 귀중히 여기시며 동지애의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력사를 광휘롭게 수놓아오신 위대한 장군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슬하의 일군들을 데리고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권총을 수여받으신 사연깊은 전지리를 자주 찾으시어 동지들과 영원히 생사운명을 같이할것을 맹약하시며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혁명적단결을 철통같이 공고히 하고 빛내일 의지를 굳히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은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진리는 내가 대를 이어 물려받은 고귀한 유산입니다.》

1970년대를 맞이하여 주체혁명의 력사적전환기를 펼쳐나가야 할 사명을 무겁게 받아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날 오래동안 뜻을 같이해온 동지들을 찾으시였다.

그이의 지혜있는 음성이 일군들의 폐부를 파고들었다.

동지가 없이는, 충실한 전우들이 없이는 그 어떤 지도자도 혼자서 큰 위업을 이룩할수 없다. 나는 동무들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수령님과 당을 받들어 영원히 충정다하리라고 믿는다!

혁명이라는 거창한 위업이 맺게 하는 참된 인간관계인 동지애.

동지들사이의 사랑이 곧 단결이며 혁명적동지애로 뭉친 힘보다 더 강한 힘은 없다!

천만금으로도 살수 없는것이 동지이고 동지의 사랑이다!

혁명적동지애는 인간에 대한 사랑의 절정이며 최고봉이다!

사상적측면에서 나와 동지들은 우리 당 청사에 나붓기는 붉은기처럼 하나로 일색화되여야 한다!

동지들이 있기에 김정일이도 있고 동지들이 없으면 김정일이도 없다는것이 나의 사상적신조이며 나는 곧 그대이고 그대는 곧 나라는 동지에 대한 믿음, 이것이 나의 동지관이다!

위대한 장군님 특유의 이 위대한 철리로 키우신 사랑하는 동지들이였다.

위대한 동지의 품에 안겨 얼마나 많은 전사들이 우리 장군님의 동지로 성장하고 빛나는 삶의 체현자로 영광스러운 생의 자욱자욱을 수놓을수 있었던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의 일군들을 한사람한사람 키우시던 나날의 이야기는 동지애의 서사시로 우리 당력사에 길이 빛나고있다.

령도자로서, 위대한 동지로서 언제나 전사들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 장군님 천만 전사들을 위해 얼마나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쓰라린 눈물도 많이 흘리시며 엮으신 동지애의 력사인가.

동지를 위해 하루밤에 천리를 달려가고 동지의 아픔을 당사자보다 더 아파하는 열혈혁명가의 고결한 정신과 헌신으로 마련하신 동지적단결이였다.

철도로동계급출신의 한 일군이 한창나이에 뇌혈전으로 오랜 기간 병치료를 받고있을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년나마 그 일군을 옆에 끼고다니시면서 주치의사처럼 건강을 돌보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의 병치료를 위하여 계단운동을 발기하시고 혼자 하라고 맡겨두면 잘하지 않을것 같아 운동시간을 정해놓고 때가 되면 하시던 일을 미루고 손수 그 장소에 나가는것을 하나의 일과로 삼으시였다.

어느날 차에서 내리시는 길로 문건가방을 옆에 끼신채 숨가삐 달려오시는 그이를 뵈옵자 그 일군은 그만 목이 꽉 메여올라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흐느끼였다.

저같은게 뭐라고…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지 마십시오.

진정하오. …옛말에 긴병에 효자가 없다고 했는데 효자는 없더라도 동지는 있소. 내가 앓으면 그때는 동무가 이만큼도 안해주겠소? 자, 어서 이 손을 잡고 일어서시오!

이렇게 병을 털고 그는 일어섰다.

색다른 음식이 하나 생겨도 《한홉의 미시가루》의 정신으로 사랑하는 동지들부터 생각하시고 어느 한 전사가 당하는 마음속고충이라도 《민생단》보따리에 불을 지피는것과도 같은 위대한 정률으로 동지의 대군을 키우신 우리 장군님.

이 세상에서 동지라는 말을 제일 사랑하시고 자신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것이 있다면 그것은 동지라고 늘 외우시며 동지들의 손을 뜨겁게 잡고 넘기 어려운 고난의 길도 함께 헤쳐오신 우리 장군님.

동지에 대한 정과 열을 천품으로 지닌분이시였기에 장군님께서는 한번 뜻을 같이한 전사들에 대하여서는 자신께서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아주는것을 응당한 본분으로 여기시고 온갖 정을 다하여 품들여 키우시였다.

언제인가 항일아동단영웅의 남동생인 한 일군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위대한 장군님의 가슴은 참으로 괴로우시였다. 일가친척 한명 없는 그가 다른 과오로 몇달전에 처벌을 받았던것이다.

하지만 곧 사업정지처벌이 내려졌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그 일을 일체 비밀에 붙이시였다.

본인이 주눅이 들것 같아 이 처벌은 나만 알고있기로 했다. 그러니 절대로 말을 내지 말아야 한다.

당연한 처벌이였지만 그의 가슴속에 그늘이 질가봐 마음쓰시며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몇명의 일군들에게만 재삼 당부하시였다.

그리하여 늘 분망하게 뛰어다니던 그 일군은 하루종일 사무실에서 학습을 하며 자기를 돌이켜보았다. 본인으로서는 사실상 로동현장에서 땀흘리며 심신을 단련하는것 못지 않게 삐근한 일이였다.

이 류다른 처벌기간 그 일군이 하던 일을 장군님께서 대신하여 직접 맡아보고 계신다는 사실은 본인도 알지 못하였다.

그 일군의 처벌을 벗겨주시던 날 장군님께서는 그사이 동무의 사업을 내가 대신했소, 일이 헐치 않더구만, 이제는 사업을 다시 인계받으시오라고 하시며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순간 그는 오열을 터치였다. 북받치는 격정, 뼈저린 자책의 눈물이였다.

그렇게 해서 결함을 깨닫고 각오도 다졌다니 됐소.

사랑하는 전사에게 든 가벼운 매를 그처럼 무겁게 여기시며 본인보다 몇갑절 속을 썩여온 위대한 동지의 사랑이 뜨겁게 어린 진정이였다.

전사들의 책벌문제가 제기될 때면 그 문건을 앞에 놓으시고 책벌받은 남편의 곁에서 온밤 괴로와할 안해의 얼굴이 떠오르시여 쉬이 수표를 하지 못하고 모대기시기를 그 몇번…

탄광로동자출신의 한 일군이 지난날의 처지를 잊고 관료화되여갈 때 《탄광로동자동무!》라고 불러주어 그로 하여금 로동계급의 본태를 잊지 않고 탄부시절처럼 검박하게 살도록 하신 사려깊은 사랑,

10년이상 차를 타고 다니던 한 일군이 과오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하면 각성시키겠는가 하고 생각하시다가 걸어다니는 처벌을 주어 그의 사상정신생활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하신 사랑…

전사들이 해놓은 성과앞에서는 온 천하를 상으로 주고싶어하시면서도 그들의 혁명적성장을 위하여 우리 장군님께서는 원칙과 인정사이에서 누구보다도 남모르는 마음속고충을 많이 겪으시며 동지를 한사람한사람을 이렇게 품들여 키우시였다.

그처럼 넋을 주고 정을 부어 키우신 동지들이였기에 그들 한사람한사람은 우리 장군님께 있어서 천금보다도 귀중하였다.

언제인가 중요한 회의를 지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전사가 운명직전에 있다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내가 가지 않으면 그가 눈인들 제대로 감을수 있겠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회의를 중지하시고 한달음에 그에게로 달려가시였다.

혼수상태의 전사를 꼭 껴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갈리신 음성으로 그를 부르시였다.

살아선 순간도 떨어질수 없고 죽어서도 정녕 심장에 고이 간직하고싶은 위대한 동지적사랑을 느낀듯 전사는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하고 그이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식어가는 전사의 몸을 혁명적동지애로 끓는 자신의 가슴으로 덥히시며 사랑하는 전사의 마지막숨결을 지켜주신 우리 장군님.

이처럼 위대하고 고결한 동지적사랑의 세계를 접한 일군이 어찌 그 한사람뿐이랴.

단 한번 안겨보아도 한생을 영광속에 살게 하는 동지의 품, 그 품을 떠나서는 억만재부도 필요없고 세상을 통채로 준대도 마음동하지 않으며 순간도 살수 없음을 뼈저리게 절감하게 하는 위대한 동지의 품.

우리의 일심단결의 초석인 숭고한 혁명적동지애는 어버이장군님의 이런 고결한 사랑으로 숭엄하게 엮어졌다.

여덟 자식을 낳아 네 자식은 굶겨죽여야 했던 가문에서 대학생이 나왔다고 울고불며 어머니가 온 동네를 돌아 얻어온 짝짝이고무신을 신고 대학에 온 일군, 13살에 어머니를 잃고 란을 캐고 카바이드도 구우면서 모질게 살아남아 해방을 맞이한 일군, 백정의 집안에서 태여나 별의별 수모를 다 받으며 살아온 일군, 왜놈십장의 딱따구리망치를 맞아가며 탄을 캔 소년탄부출신의 일군, 벌목공의 자식으로 화전을 뚜지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일군…

거의 모두가 길가의 막돌처럼 버림받던 인생들이였다.

때문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이 더없이 귀중하시어 대해같은 품에 안아 한량없는 정을 부어주시며 뜻을 함께 할 혁명동지로 키우시였다.

인간을 아시고 그의 지향을 아시고 공로를 헤아려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끝없는 동지적사랑에 매혹되어 뭉친 철의 대오가 바로 당의 기초축성시기의 일군들이였다.

인류지성의 절정에서 광망을 뿌린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 지구를 움직인 그이의 비상한 령도력, 만민의 가슴을 덥혀준 은혜로운 덕망의 원천은 명실공히 동지애였다.

인간을 참되고 아름답게 완성시켜주는 우리 장군님의 동지적사랑을 자양분으로 하여 성장한 그들이였기에 백옥같은 충정으로 위대한 당을 절대적으로 믿고 받들었다. 누구나 눈속에 파묻혀도 푸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불에 타도 곧음을 잃지 않는 참대처럼 신념과 의리를 체질화하였다. 직권이나 간판을 가지고 일한것이 아니라 견결한 당적원칙과 비타협적인 투쟁기풍, 강철도 녹일 혁명열로 로동당시대의 전성기를 앞장서 열어나가는 길에서 일자리를 푹푹 내였다.

력사의 그 길에서 혁명적동지애와 혁명적단결, 이것이 우리의 모든 승리의 요인이며 혁명은 곧 동지, 동지는 곧 혁명이라는 진리, 주체혁명위업은 오직 뜻과 생사를 함께 하는 진정한 동지들사이의 혁명적단결로만 이룩할수 있다는 혁명사의 정의를 확증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천추만대 길이 빛날것이다.

선군혁명동지의 대부대

전대미문의 시련이 휩쓸던 1990년대 중엽은 참으로 엄혹한 시기였다.

원쑤들의 미친듯 한 고립압살책동, 련이어 들이닥치는 자연재해…

세계의 진보적인류가 조선의 운명을 두고 우려하고있을 때 시련의 먹장구름을 산산조각내고 장쾌한 승리의 려명을 떠올릴수 있은 힘은 무엇이였던가.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추억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을 쿵쿵 울리게 한다.

별의별 고생을 다 겪었지만 나의 곁에는 항상 동지들이 있었다. 동지들과 함께 있었기때문에 나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하였고 그 어떤 용단도 내릴수 있었다. 그 력사를 잊으면 인간이 아니다!

자욱자욱 피어린 선군길에서 뜻과 정을 함께 한 동지들에 대한 하많은 추억이였다.

나는 총잡은 군인들을 단순히 최고사령관의 전사라는 군직관계에서가 아니라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혁명동지로 보고 그들을 끝없이 사랑합니다!

생사운명을 같이할 혁명동지의 대부대가 없이는 《최강》을 자랑하는 대적과 싸워 이길수 없으며 오늘의 엄혹한 난국을 뚫고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할수 없습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무기만능론을 제창하며 현대적무기생산과 구입에 열을 올릴 때 병사들에 대한 사랑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시며 주체의 선군정치의 초행길을 광휘롭게 수놓아가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치신 폭풍사나운 선군길은 동지적사랑과 혈연의 정으로 총잡은 병사들의 사명감을 백배천배 승화시켜 동지대군을 낳은 전인미답의 사랑의 장정이였다.

전세계의 초점이 평양에 집중되던 1995년 1월 1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지켜 포신들을 거연히 추켜세운 다박솔초소를 찾으시였다.

나는 1995년을 맞는 우리 당에 충실한 조선인민군 장병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세계를 폭풍처럼 뒤흔든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전면적개시는 이렇게 다박솔초소와 잇닿아있다.

뜻을 나누어도 피끓는 가슴을 헤치고 온 넋을 깡그리 바치는 총대동지들만이 따라설수 있는 고난의 천만리였다.

꼭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선 열혈동지들의 사상과 뜻만큼 위대한 세계가 없고 그들의 사랑과 믿음처럼 고결한 인간관계가 없음을 실증한 위대한 동지애의 행로였다.

격정의 눈물없이 도저히 헤아릴수 없는 동지애의 천만리를 위대한 장군님의 영원한 전사, 제자들인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어이 잊을수 있으랴.

지금 전연초소에서는 나의 수많은 아들딸들이 조국의 방선을 지키고있습니다. 나는 전선경계근무를 수행하고있는 아들딸들의 군무생활을 료해하고 그들을 고무해주어야 하며 그러자면 전선지대에 찾아가야 합니다!

나는 군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아무리 멀고 험난한 곳이라고 해도 찾아가 믿음을 주고 정을 주며 사랑의 한품에 안아 선군혁명동지로 내세워주고있습니다!

나는 전사들과 있는것이 제일 기쁩니다!

백두산에 시원을 둔 동지애의 력사는 위대한 장군님의 이런 특출한 병사들에 대한 사랑으로 하여 선군정치와 더불어 일대 최전성기를 펼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천만고생으로 안아오신 혁명사의 위대한 전성기였다.

때로는 향긋한 풀냄새를 맡으며 전사들과 함께 강행군도 하시고 어느날 이른새벽 숙영지에서 전사들이 끓인 야전밥통의 밥도 그들과 어울리시여 맛게 드신 병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 쾌속으로 달리는 함선의 갑판우에서 원쑤들을 단번에 요정낼 투지에 넘쳐있는 병사들의 가슴후련한 신념의 목소리도 들어주시며 항해길도 함께 이어가신 위대한 동지…

선군혁명의 열풍이 휘몰아친 이 나라의 모든 초소는 정녕 어려울 때면 먼저 병사들을 만나고싶고 그들의 씩씩한 모습을 보면 신심이 생긴다고, 부대들에 나가 흙냄새를 맡으며 병사들을 만나는것이 제일 좋다고 하시며 일년내내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길이 얼마나 간고한 시련의 길이였는가를 전하는 력사의 증견자들이다.

어느해 장마철 위대한 장군님께서 타신 야전차가 간난신고끝에 마침내 오성산 전방지휘소앞에 이르렀을 때의 일이다.

물목이 터진듯 달려오던 오성산초병들은 약속이나 한듯 그 자리에 굳어졌다.

위대한 장군님의 옷이 비물에 홈빡 젖어있고 바지아래도리는 온통 진창투성이가 아닌가.

(아, 최고사령관동지!

친부모들도 언제 한번 와보지 못한 이 험한 초소에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제일 궂은날 이런 위험천만한 길을 꼭 걸으셔야 한단 말입니까!)

그들을 만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립던 정, 반가운 정을 누를길 없으시여 손수건을 눈언저리에 가져다대시며 말씀하시였다.

일없다고, 어떻게 좋은 길로만 다니겠는가고, 그만 그치라고…

이렇게 오성산초병들을 한품에 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날씨가 나빠 사진이 잘 안찍힐수 있다고 걱정하시며 어떻게 하나 사진을 잘 찍어 병사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몇번이나 당부하시였다.

우리 천만이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길을 잊지 말라고 오늘도 사나운 파도 길길이 솟구치는 서해의 초도에는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는것인가.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쾌속정이 사나운 풍랑과 싸우며 드디여 섬초소부두에 도착하였을 때였다.

자나깨나 그립던 위대한 장군님을 뜻밖에 맞이한 부대의 지휘관은 한달음에 달려와 규정대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하고 영접보고의 시작은 했으나 격정이 솟구쳐 뒤말은 다르게 이어졌다.

《…오늘같이 험한 날씨에 어찌하여 자디작은 쾌속정을 타고 오시였습니까.

우리 부대에 큰 배도 있… 흑…》

류례없는 영접보고에 이어 부두에는 울음바다가 펼쳐졌다.

사랑하는 병사들을 위해서라면 하늘끝까지 가시고 병사들이 있는 곳이면 천리가시덤불길도 마다하지 않으신 위대한 선군령장의 기적의 길이였다.

시련의 나날 매일같이 이어진 우리 장군님의 전선길은 죽음을 초월한 동지적사랑이 얼마나 숭고하며 그 위력이 얼마나 강대한가를 보여준 탁월한 선군정치가의 불멸할 로정이다.

력사의 그 길에서 사상과 운명을 함께 할 피줄을 사랑하는 총대동지들과 굳건히 이으신 우리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과 혈맥을 이은 동지들중에는 두볼을 적시면서 소리없는 《만세!》환호를 올리는 병사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신 판문점의 불굴한 초병들도 있고 장군님께서 서계시는 바람세찬 감시소의 바닥에 불돌을 깔아드리며 이 세상에 우리 인민군전사들처럼 자기 최고사령관에게 충실한 전사들은 없다고, 우리는 전사복이 있다고 하시며 장군님께서 끝내 감동을 금치 못하신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 병사들도 있으며 밤새 달려온 장군님의 야전차에 두툼히 쌓인 흰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소리내여 운 어린 병사들도 있다.

가시어서는 혁명무력의 전투력강화에서 무장장비를 끊임없이 현대화해나가는것도 중요하지만 피를 나누고 생사를 같이할 혁명동지들인 지휘관과 병사들을 굳게 단합시키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상하간에 마음이 통하고 정이 통하면 무서울것이 없다고, 인민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은 병사들을 친부모, 친형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어야 한다고, 총대가 혁명동지애와 결합될 때 그 위력은 참으로 필승불패이라고,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전군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신 우리 장군님.

이처럼 시련의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매일같이 걸으신 선군길은 최고사령관과 병사의 군직관계를 동지애의 최정지로 승화시켜 병사들과 혈육보다 더 진한 피를 나누며 전군을 최고사령관의 혁명동지로, 최고사령관의 대식솔로 만든 숭고한 동지애의 장정이였다.

서슬푸른 총검이 숲을 이룬 이 나라의 모든 초소에서 백두산장군과 뜻과 정을 함께 하는 신념의 근위병들의 대군, 천하제일명장의 출중한 담력과 기질을 닮은 펄펄 나는 백두산호랑이들의 대군을 키워 우리 군대의 위력을 천백배로 강화하신 불세출의 명장의 만고의 업적을 우리 어찌 천년이 간들, 만년이 간들 잊을수 있으랴.

*　　*

우리 혁명의 넋이며 생명선인 동지애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변함없는 주체혁명위업의 영원한 주제이다.

강대한 적들과 맞서 사회주의를 고수하며 어려운 투쟁을 하고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혁명적동지애와 그에 기초한 단결은 생명보다 더 귀중합니다!

우리가 간고한 혁명의 길을 승리적으로 걸어나가자면 동지애의 구호를 더욱 높이 들어야 합니다!

령도자의 사상과 뜻대로 살며 일하는 사람이 령도자의 진정한 혁명동지입니다!

동지애의 구호를 더 높이 들고나갈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은 백두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백승의 기치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간곡한 당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후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일편단심 받들어 길이 번영하기를 바라시는 그이의 숭고한 념원이 깃들어있다.

《ㅌ.ㄷ》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의 성스러운 동지애의 력사는 오늘 위대한 단결의 중심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격동의 시대와 더불어 최전성기를 펼치고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주체조선의 풍부한 자원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바로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동지들입니다!

나는 당중앙과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숨결과 피줄을 잇고 사는 수많은 동지들이 있는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고있습니다!

동지들사이의 믿음을 사랑과 의리를 낳는 정신적원천, 우리 국가에 대한 신뢰의 기초로 중시하시며 위대한 동지애의 혁명철학을 우리 당의 영원한 승리의 표대로 하여 최후승리를 이룩하시려는 철의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천만군민이 동지애로 뭉치면 백번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날수 있고 력사의 그 어떤 기적도 창조할수 있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동지철학이다.

혁명전사 한사람한사람을 품에 안아 백두의 칼바람정신과 신념을 만장약해주시고 이 땅을 동지애가 만발하는 일심단결의 무성한 화원으로 가꾸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동지애의 위대한 계승을 원동력으로 하는 우리 천만군민이 위대한 동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천겹만겹 신념과 의리의 성벽을 쌓고 폭풍쳐 나아가는 주체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본사기자 량 순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 받들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준비해갈 결의에 넘쳐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본사기자 찍음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

어은혁명사적지 련일 참관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이하는 온 나라 강산에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이 세차게 굽이치는 속에 어은혁명사적지를 찾는 참관자들의 대오가 끝없이 이어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75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인민군군인들과 김일성종합대학, 형제산식료공장, 평양시안의 고급중학교들을 비롯한 40여개 단위의 2만여명에 달하는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이곳을 참관하였다.

령군봉이 거연히 솟아 빛나는 력사의 땅에서 참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선군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갈 신념의 맹세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혁명령도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주체의 사회주의를 영예롭게 수호하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습니다.》

혁명사적비 《위대한 명장의 자욱 빛나는 영광의 땅이여》앞에서 참관자들은 20대시절에 벌써 무비의 담력과 령활무쌍한 전법으로 주체적전군사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천출위인상에 가슴뜨거움을 금치 못하였다.

백두령장의 신묘한 사격술과 특출한 령군술을 전하는 실탄사격장, 산지사격훈련장 등을 돌아보면서 인민군군인들은 올해를 훈련의 해로, 싸움준비완성의 해로 정한 당의 의도를 심장에 새겨안고 명사수, 명포수운동을 더욱 세차게 벌려나감으로써 펄펄 나는 일당백의 만능싸움군, 백두산호랑이들로 준비할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다.

령군봉에 오른 참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읊으신 시 **《백두의 행군길 이어가리라》**가 정히 아로새겨진 비를 우러르며 어버이장군님께서 한평생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사생결단으로 헤쳐가신 선군길이 있었기에 우리 조국은 강위력한 정치군사강국, 최강의 핵보유국으로 전변되게 되였음을 절감하였다.

혁명사적지에서 진행된 시랑송발표모임, 웅변모임들을 통하여 청년학생들은 백두산청년강국의 존엄이시고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준비해나갈 의지를 가다듬었다.

전체 참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선군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강원도정신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워나갈 불타는 충정의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실력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전당에 혁명적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키자

높은 실력이 당정책관철을 담보한다

연탄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을 놓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실력이 있어야 옳은 방법론을 세워가지고 사리에 맞게 일을 처리할수 있으며 말을 한마디 하여도 날이 서고 당적권위가 보장될수 있습니다.》

최근에 연탄군을 돌아본 우리는 실력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하였다. 군이 도에서는 물론 전국적인 범위에서도 당정책관철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는 밑바탕에 바로 일군들의 높은 실력이 놓여있었다. 벅찬 시대의 요구에 맞게 실력전의 된바람을 일으켜 당정책관철을 적극 추동한 이곳 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은 교훈적이다.

결코 실무적문제가 아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일군들이 실력제고를 위한 사업을 사활적인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데 큰 힘을 넣었다.

리향걸동무가 군당위원장사업을 갓 시작했던 때의 일이였다. 일부 협동농장들인 경우 리당일군들이 애써 뛰여다니는데도 시기별영농사업이 응당한 수준에서 진행되지 못하고있었다.

한 농장에 나갔다가 실태를 료해하는 과정에 짚이는바가 있었던 그는 며칠후에 열린 일군들의 모임뒤에 농업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정형을 알아보는 시험을 치도록 하였다.

처음 있는 일이라 참가자들은 술렁거렸다. 이어 필답시험이 있었다.

결과는 명백했다. 영농사업실적이자 일군들의 실력이였다.

그날 시험정형을 해당한 장소에 게시하도록 한 당책임일군은 시대는 발전하는데 자기 부문 과학기술지식이 약해가지고 당적지도를 옳바로 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오늘날 실력제고문제는 단순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정책의 운명을 걸머진 일군들의 자격문제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후에도 현행사업과 결부된 이런 실력판정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심화되였다. 모든 사업과정이 실력발휘과정으로, 각종 모임이 또 하나의 실력판정계기로 전환되였다.

당의 사상과 로선을 환히 꿰뚫지 못하고 과학기술실력이 약해가지고서는 일군구실을 할수 없고 배겨낼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하게 되였다.

실력에 따라 일군들을 평가하고 선발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실력경쟁의 열풍은 이렇게 불기 시작하였다.

인재들을 적극 내세우는 기풍

세도군, 관료주의자들은 아첨군을 가까이하지만 박식가, 실력가들은 인재를 친구로 삼는다.

군당위원회에서는 군안의 모든 일군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인재들을 보배로 여기고 적극 내세워줄뿐아니라 그들을 늘 끼고다니며 배우고 배워주도록 하였다.

군에서 제로 치는 한명한명 선발한 기술개발력량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당정책관철의 지름길을 열고 실력의 탑을 높이 쌓아가는 군당위원장의 이신작칙은 산모범으로 되였다.

그는 군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절실한 문제가 새롭게 나설 때마다 인재들속에 먼저 들어가 그들의 심금을 울려주면서 탐구령역도 함께 개척해나갔다. 농학과 기계공학, 미생물학 등을 비롯하여 론의하는 분야는 제한이 없었다.

교반기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창안제작하면서 아크릴계외장재생산기지를 새로 꾸릴 때에도 인재들에게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주는 한편 참고서적들을 쌓아놓고 열정의 낮과 밤을 함께 보내였다.

늘 손에 책을 들고다니면서 학습하고 인재들과 탐구도 함께 하는 과정에 그의 실력은 전문가이상으로 높아졌다. 당적지도를 하면서 기술적착상을 윙겨준적도 한두번이 아니다.

장매협동농장 제5작업반마을에 메탄가스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벌어질 때 탕크의 밀폐상태에만 주의를 돌리는 기술자들에게 기질의 산도문제에 관심을 돌리도록 한것을 비롯하여 이런 사실들은 많다.

이것은 군당위원회일군들은 물론 군안의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당일군들이 실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력전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도록 추동하였다.

자만과 답보는 금물

군당위원회에서는 실력전을 벌리는데서 절대로 자만을 모르고 계속 탕개를 바싹 조이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군안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과학기술보급실을 꾸리고 국가망과 련결하는 사업이 끝난 직후였다.

해당 부서를 통해 과학기술보급실운영정형을 료해하는 과정에 당책임일군은 실력전을 위한 군당위원회의 당적지도에 빈틈이 있음을 포착하였다.

남들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 걸을 야심을 가지고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피나게 하는 단위가 있는가 하면 등한히 하는 단위도 있었던것이다.

군당위원회에서는 거둔 성과에 만족해하는 일부 단위들을 분발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군당위원회일군들은 일상적으로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잘 짜고들어 그 덕을 보고있는 단위들의 긍정적인 자료를 알려주면서 그들의 모범을 일반화해나갔다.

단위들에서는 현대적으로 꾸려놓은 과학기술보급실에 의거하여 실력향상, 실력경쟁의 불길이 더욱 거세차게 타올랐다.

이것은 한 실례에 불과하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만족을 모르고 줄기차게 벌어진 실력전의 열풍속에서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열매들은 풍만하게 무르익고 인민들이 곳곳에서 심장으로 터치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리게 되였다.

이곳 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은 높은 실력이 당정책관철을 담보한다는것을 실천으로 확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리정수

— 시대가 부르는 일군들 —

정치사상적준비를 첫자리에

희천정밀기계공장 당위원회가 내세운 올해전투목표가 참으로 방대하다.

새형의 뜨락또르와 자동차생산에 필요한 연료뽐프, 분사기, 피스톤을 비롯한 10여종의 부속품 생산…

지난 시기에는 엄두도 낼수 없었던 목표이지만 일군들은 확신에 넘쳐있다.

지난 1월초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대한 학습이 진행되던 어느날이였다.

일군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년사를 원문그대로 외우는 당위원장 한철봉동무의 모습을 보면서 일군들은 많은것을 생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이 나오면 제일먼저 밤을 새워가며 학습하고 매 시기 당정책이 제시되여도 자신부터 꾸준히 학습하여 정치사상적준비부터 단단히 갖추는 당책임일군이였기때문이다.

하기에 당의 의도대로 그는 당정책관철에서 언제나 앞장에 설수 있었으며 기수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다.

70일전투에 이어 200일전투에서도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킨 능력도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한 당책임일군의 남다른 정치사상적준비에 근본바탕이 있었다.

하기에 올해신년사과업관철을 위한 전투목표를 두고 이곳 일군들은 당책임일군의 정치사상적수준의 높이라고 하며 자신들을 따라세우고있다.

정치사상적수준, 바로 이것이 비약하며 전진하는 위대한 김정은시대 우리 일군들이 갖추어야 할 첫째가는 실력인것이다.

필수적인 제2의 실력

함흥모방직공장 당위원회 일군들의 과학기술실력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다.

방모방적직장에서 수입에 의존하던 란성침포가 없어 생산에서 애를 먹고있을 때였다.

현장에 나온 당위원장 박욱희동무는 기술자, 기능공들에게 세계적인 추세가 금속침포에 의한 담요생산방향으로 나가고있다고 하면서 어느 한 부분품만 개조하면 지금 조건에서도 능히 가능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순간 기술자들속에서 탄성이 터져올랐다. 기발한 착상이였던것이다.

당일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늘 현장에서 기술자, 기능공들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불러일으키면서 성공에로 이끌어갔다. 이것은 그의 높은 과학기술실력을 떼나 생각할수 없다.

언제나 알아야 지도를 할수 있고 기관차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가 오래전부터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에 따르는 과학기술지식을 폭넓고 깊이있게 소유하기 위해 애써 노력해온 결과였다.

이 나날 그는 여러차례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학위소유자로 되였다.

하기에 이곳 기술자들과 종업원들은 그를 가리켜 박식가당일군이라고 부르고있다.

현대과학기술을 습득하는것, 바로 이것이 오늘의 전민총돌격전에서 우리 일군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제2의 실력인것이다.

본사기자 최영길

과학기술보급실운영에서 틀어쥔 문제

경성애자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실력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있다. 하지만 꾸준한 학습을 통하여 실력을 부단히 높이는 사업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과학기술보급실을 실속있게 운영하여 종업원들이 실력을 높여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준 경성애자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은 주목할만 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지난해초 어느날이였다. 과학기술보급실을 돌아보는 초급당위원장 방두진동무의 마음은 개운하지 못하였다.

하루일이 끝났지만 과학기술보급실을 리용하는 종업원들이 많지 못하였던것이다.

일부 일군들은 현행사업이 바쁘다고 하면서 낯을 적게 돌렸고 어떤 로동자들은 과학기술학습이 기술자들에게만 필요한것처럼 생각하고있었다.

그는 이런 편향이 나타나게 된 근본원인을 초급당위원회가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려놓는데 그치고 그 운영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강하게 내밀지 못한데서 찾았다.

다음날에 진행된 당, 행정, 기술일군들의 협의회에서는 종업원들속에서 실력전의 된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문제 특히 과학기술보급실을 활발히 운영하는데서 나서는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이에 따라 직장별, 단위별로 과학기술보급실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종업원들의 기술학습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면서 해당한 대책을 따라세우는 사업체계가 세워지게 되였다. 또한 과학기술보급정형에 대한 총화를 생산총화와 함께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초급당위원회가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콤퓨터지식수준에 따라 세 부류로 나누고 그에 맞게 과학기술강의를 진행하도록 한것은 공장안에 학습열풍을 고조시킨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지난 시기에는 종업원들의 콤퓨터지식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콤퓨터를 리용하는 과학기술강의를 하다나니 강의하는 사람도 성수가 나지 않았고 강의받는 사람들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였다.

결과 종업원들의 학습열의가 응당한 높이에서 발휘되지 못하였던것이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콤퓨터지식수준에 맞게 강의를 하게 된 때로부터 강의하는 사람과 강의받는 사람들사이의 호흡이 잘 맞고 과학기술학습에 대한 종업원들의 관심도 높아지게 되였다.

직장장들인 리덕철, 장영남동무를 비롯하여 누구나 과학기술보급실을 즐겨찾았으며 강의에 참가하여서도 실력을 높이기 위해 애썼다.

초급당위원회는 대중의 학습열의가 높아지는데 맞게 과학기술보급실리용률을 최대로 높이도록 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였다.

당시 과학기술보급실을 저녁에만 운영하다나니 한개 단위가 한달에 한번정도 리용하는 형편이였다.

초급당위원회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점을 포착하고 대책을 세웠다. 그것은 과학기술보급실문을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며 오전에는 이미 생산을 끝낸 단위들에서, 오후에는 비생산단위들에서, 저녁에는 하루일을 마친 단위들에서 운영하도록 하였다.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이 활발해지는 과정에 종업원들이 실력전에 적극적으로 뛰여들어 지식의 탑을 쌓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게 되였다.

세차게 휘몰아친 실력전의 열풍속에서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현대과학기술의 소유자로,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자신을 더욱 튼튼히 준비해나갔다.

최권아동무가 실정에 맞는 경영업무지원프로그람을 개발하여 경영관리를 개선하도록 한것도, 리경일, 김광철동무들이 형공구직장 로동자들과 힘을 합쳐 중형애자성형기의 CNC화를 짧은 기간에 실현한것도 과학기술보급실을 통하여 실력을 끊임없이 높인 결과이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 과학기술보급실들이 그물처럼 덮이고 최신과학기술보급의 중심거점인 과학기술전당이 일떠서 누구나 마음껏 배울수 있는 조건이 더욱 훌륭히 마련된 오늘 매 단위에서 실력전이 얼마나 힘있게 벌어지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 단위 당조직들의 역할에 달려있다.

모든 당조직들이 옳은 방법론과 치밀한 조직사업으로 과학기술보급실을 실속있게 운영할 때 대중의 학습열의는 비상히 높아지고 실력의 강자들의 대오가 더욱 장성강화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승표

|| 수필 ||

인생과 교정

비약하는 시대의 벅찬 숨결을 느낄수록 나에게는 인생과 실력이란 의미가 하나의 개념으로 안겨오군 한다. 다시말하여 성공한 인생과 높은 실력은 쌍둥이라는 뜻이다.

공장로동자들속에서 박사라는 호칭으로 불리우는 한 당일군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른다.

그의 학력은 지방의 평범한 전문학교졸업이 전부였다. 그러나 실력은 그 졸업증과 너무도 놀라운 격차를 가지고있었다. 공장에서 실현한 수천건의 기술혁신안들이 거의나 그의 착상의 산물이라는 공장기술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받은 충격은 참으로 컸다. 그 비결에 대한 본인의 말이 매우 인상깊었다.

《한생을 쌓아도 모자라는것이 지식이지요. 하기에 학교에는 졸업증이 있지만 지식의 세계엔 졸업증이 없다고 봅니다.》

그가 걸어온 인생의 자욱자욱은 진정한 실력가일수록 지식의 빈곤을 느끼며 산다는 말의 참뜻을 다시금 되새겨보게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시대는 과학기술로 발전하고 과학기술로 살아가는 시대이며 실력전의 시대입니다.》

실력가들에 대해 말할 때면 사람들은 흔히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부터 묻군 한다. 이것은 대학과정이 사람의 실력축적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때문일것이다.

물론 대학과정에 많은 원리적인 문제들과 풍부한 지식을 습득하는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학에서 얻은 그 량식만으로 인생의 먼길을 갈수 있겠는가. 끊임없이 량식을 보충하지 않고서는 성공의 높은 령마루로 주저없이, 질풍같이 내달릴수 없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무산광산련합기업소나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당책임일군의 인생길을 더듬어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속에서 팔방미인, 지식창고, 움직이는 사전으로 불리우는 그들의 높은 실력은 결코 대학과정의 산물이라고만 볼수 없다.

그들은 다같이 인생 그자체를 또 하나의 거대한 대학으로 여기고 들끓는 현실에서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배우고 또 배우는 불같은 정열가들이다.

당정책을 환히 꿰뚫고 풍부한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실력가형의 책임일군들이 있는 곳에선 사상의 강자, 실력전의 강자의 대부대가 자라나고 새로운 기적과 비약이 일어나게 된다는것이 현실이 확증해주는 철학이다.

일군들만이 아니다. 언제인가 한 로동자발명가가 일과표에 대해 쓴 글이 떠오른다.

《나에게는 학습장소와 학습시간이 따로 없다. 모든 장소가 강의실이고 모든 시간이 수업시간이다. 이것이 나의 학습일과표이다.》

이런 사실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대학졸업증이 결코 실력의 증서가 아니며 마음먹고 한생을 학습열로 불태우며 실력을 쌓으면 누구든 실력의 강자로 될수 있다는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수록 나에게는 실력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구상을 펼친 우리 당에 대한 고마움이 가슴가득 차오른다.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교육제도, 수도의 인민대학습당과 과학기술전당으로부터 온 나라에 수풀처럼 일떠선 과학기술보급거점들…

누구나 마음껏 배움의 나래를 펼칠수 있는 조건이 다 마련된 사회주의 내 조국이야말로 얼마나 훌륭한 인재육성의 토양인가.

문제는 이 땅의 매 인간들이 어떤 관점에서 어떤 발걸음을 내짚는가에 달려있는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실력축적은 자신의 몫인것이다. 특히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비상한 속도로 비약하는 오늘의 시대에 그 누구든 실력이 없으면 시대의 기슭으로 밀려나게 된다.

그러나 실력이야말로 인간의 품격과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무기가 아니겠는가.

오늘 온 나라에 몰아치는 학습열풍, 실력전의 된바람은 당 제7차대회결정을 높이 받들고 천하제일강국으로 비약하는 이 땅에 크나큰 활력을 부어주고있다.

그렇다. 실력의 강자, 바로 그것은 인생의 전구간을 교정으로 삼고 삶의 순간순간을 수업시간으로 이어갈 때 지닐수 있는 시대의 값높은 표창이다.

본사기자 김영철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희천시당위원회 일군들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신창역이 새로 건설

신창역이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훌륭히 건설되여 준공하였다.

2층으로 된 역사에는 손님대기실과 봉사매대, 문화후생시설 등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애국의 구호를 높이 들고 군인건설자들은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돌격전을 벌리였다.

이들은 불가능을 모르는 창조본때와 단숨에의 기상으로 일판을 통이 크게 벌려나가는 한편 부족되는 자재를 자체로 보장하면서 단 몇달동안에 역사를 번듯하게 일떠세웠다.

군인건설자들은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라는 사명감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수천m^2에 달하는 역구내와 홈포장, 수백m의 울타리공사를 와닥닥 해제끼고 역주변에 300여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와 지피식물들을 심어 풍치를 한껏 돋구었다.

평양철도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인민군군인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건설자재들의 수송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면서 180여종에 1만 5 000여점에 달하는 마감자재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 완공을 앞당기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새로 건설된 신창역 준공식이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세우고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려나간다.
—대안전기공장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정신력의 강자들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

수동탄광 일군들과 로동계급

전민총돌격전의 장엄한 신호총성이 울렸다.

지난해에 비해 근 1.4배로 높이 세운 석탄생산계획, 이것은 수동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에게 있어서 실로 방대하고 어려운 과제가 아닐수 없다.

생산조건은 의연히 긴장하고 로력과 설비도 부족하다.

그러나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1월 30일까지 월 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으며 2월에도 계속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전례없는 혁신적성과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하며 지하막장마다에 위훈의 별을 수놓아가는 탄부들의 자랑찬 증산성과. 그것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석탄공업과 철도운수부문에서는 발전소와 금속, 화학공장들의 석탄과 수송수요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새해 첫 전투를 앞두고 탄광책임일군의 방에서는 전투목표수행을 위한 협의회가 진행되였다.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현존생산조건에서 계획을 수행할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탄광책임일군이 조용히 일어섰다.

《동무들, 우리모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올해신년사를 격정속에 받아안던 시각을 돌이켜봅시다.》

언제나 늘 마음뿐이였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속에 지난 한해를 보냈는데 올해에는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할 결심을 가다듬게 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를 폐부로 절감하던 그날이 안겨왔다.

온 한해 인민을 찾아 인민의 행복창조를 위해 불철주야의 헌신과 로고를 다 바치시고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성히 더 높이 떠받들수 있겠는가 하는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워진다시던 그이의 음성을 애국애민의 절절한 호소로 새겨안은 우리 일군들과 탄부들이 아닌가.

과연 우리가 그날의 그 격정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일군의 준절한 음성이 다시금 울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각도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을 걷고계십니다. 자기 령도자와 사상도 뜻도 숨결도 하나가 된다는것이 회의장에서만 웨치는 구호가 되여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뼈저린 자책과 반성속에 이들은 심장으로 결의해나섰다.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증산하고 또 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의 주요전구들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자.

오직 결사관철의 숨결만이 맥박치는 탄전은 용암마냥 끓어번졌다.

탄광참모부에서는 높아진 석탄생산 및 굴진계획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보장할 구체적인 작전밑에 예비탄밭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채탄방법들을 받아들이며 전차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나갔다.

당, 행정일군들이 야전지휘관의 자세로 한개 막장씩 타고앉아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고 생산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갔다.

당정책의 운명과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는 초급당의 역할에 달려있다는것은 지난해투쟁을 통하여 이곳 당조직이 절감한 고귀한 진리였다.

력사적인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의 기본정신을 심장마다에 만장약한 탄광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시키는것을 당정책관철의 근본열쇠로 틀어쥐고 사상사업, 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갔다.

지배인 김홍광동무는 탄광의 전반적인 사업을 지휘해야 하는 바쁜 속에서도 생산용자재들과 후방물자들을 가지고 막장들을 찾아 증산돌격전에 떨쳐나선 생산자대중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고무해주었다.

일군들의 힘있는 정치사업과 과학적인 작전, 이신작칙의 일본새가 남김없이 발휘되는 속에 모든 전투현장들마다에서는 날에날마다 석탄생산성과가 확대되였다.

청년갱은 채탄조건이 몹시 불리하였다.

자동차가 붙을수 없는 경사급한 경까지 탄부들은 싸우는 고지우에 포탄을 나르는 심정으로 동발목을 메나르며 석탄생산을 진행하였다.

한겨울의 추위속에서 한지한치 오르다가는 미끄러운 얼음판우에 넘어지기를 그 몇번.

그러나 주저앉은 사람도, 물러선 사람도 없었다.

조건이 어렵다고 물러서고 시련이 크다고 주저앉는다면 우리 어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전사라고 떳떳이 말할수 있겠는가.

이런 불굴의 신념을 지녔기에 김은철, 리경남, 리영일동무를 비롯한 굴진공들은 지심의 굴진막장에서 결사전을 벌려 2개교대의 인원으로 3교대분의 굴진성과를 이룩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탄광적인 계획수행에서 제일 큰 몫을 차지하고있는 덕사갱의 조건도 마찬가지였다. 갱의 탄밭조건이 몹시 불리했던것이다.

석탄생산에서 예비탄밭조성이 가지는 중요성을 자각한 일군들과 탄부들은 기술자들과의 련계밑에 부족되는 탄밭을 마련하기 위해 피타는 노력과 사색을 거듭하였다.

결과 좌분선 17구역에서 돌파구를 열어놓음으로써 1월 석탄생산계획수행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할수 있게 되였다.

결코 조건이 좋아서 만리마시대 전군속도가 창조되는것이 아니다.

오직 자기 령도자와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당정책관철전에서 조건타발을 모르고 과감히 전진해나갈 때 시대를 격동시키는 기적이 창조된다는것을 우리는 이들의 투쟁성과를 통해 다시금 새겨안게 되였다.

심학철

광명성절경축 전국서예축전 개막

광명성절경축 전국서예축전이 개막되였다.

축전장에는 태양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녀학생의 서예솜씨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자애로운 모습을 형상한 조선화 《나어린 재간둥이를 찾으시고》가 모셔져있다.

이번 축전에는 절세위인들의 명언들과 선군시대의 새로운 시대어들을 비롯하여 만리마속도창조로 들끓는 전투장마다에서 서예작품가들, 애호가들이 창작활동과 로동생활과정에 찾아낸 명문장들, 서정이 넘치는 시구들을 다양한 붓글씨체로 형상한 300여점의 우수한 서예작품들이 출품되였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높이 사회주의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여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성과 업적을 칭송한 《빛나라 정일봉》, 《백두광명성》, 《아침송》 등의 작품들에 담겨져있다.

《강원도정신》, 《창조대전》, 《만리마경수》를 비롯한 작품들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쳐나가는 천만군민의 필승의 기상이 반영되여있다.

전국서예축전 개막식이 8일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동지와 정광호 내각부총리, 관계부문 일군들, 창작가, 애호가들, 청소년학생들, 시내 근로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개막식에서는 박춘남문화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미술부문의 모든 창작가들과 서예애호가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대고조격전장들마다에서 자력자강의 영웅신화를 창조해나가고있는 천만군민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는 명작, 력작들을 더 많이 창작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된 작품들을 돌아보았다.

뜻깊은 2월 8일을 맞으며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화환 진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 69돐을 맞으며 8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화환이 진정되였다.

화환진정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명수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군인들이 참가하였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의 화환진정대 《영웅들의 넋》에 인민무력성과 조선인민군 각급 부대, 군사학교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화환들의 댕기에는 《영웅적 조선인민군 렬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령도에 무한히 충직하였으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전에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바친 인민군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며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이 발휘한 무결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열렬한 애국주의정신, 대중적영웅주의와 고귀한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이룩해나갈 혁명적열의로 가슴 불태웠다.

참가자들은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돌아보았다.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 진행

뜻깊은 2월 8일을 경축하는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8일 각지에서 진행되였다.

당창건기념탑, 개선문광장을 비롯한 수도의 무도회장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 력사의 날을 맞이한 청년학생들의 환희로 설레이고있었다.

《조선인민군가》의 노래선률이 울려퍼지자 경축의 춤바다가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자주시대 혁명무력건설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시고 불패의 군력을 백방으로 다지시여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강력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며 춤물결을 이어나갔다.

《조선의 행운》,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등의 노래선률에 맞추어 아름다운 춤물결을 일으켜가는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인민군대를 무적의 최정예전투대오로 키우시였으며 우리 조국을 자위적군사강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려세워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어려있었다.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백두산혁명강군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 《인민의 환희》의 노래들에 차넘치였다.

위대한 김정은시대 청년대군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해갈 열혈청춘들의 드팀없는 의지를 담은 《청춘송가》, 《조국도 빛나리 청춘도 빛나리》, 《전선에서 만나자》 등의 노래들이 무도회장들에 울려퍼지며 경축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무도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선군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당의 청년전위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갈 청년학생들의 혁명적열정과 기백을 잘 보여주었다.

이날 각 도소재지들과 시, 군들에서도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가 진행되였다.

— 당창건기념탑광장에서 —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들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참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들이 8일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먼저 조사공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백두산천출위인들의 손길아래 현대적인 비단실생산기지로 전변된 공장의 혁명사적교양실, 전방직직장, 로동자합숙을 비롯한 여러곳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뗄랍 쑬레이만 수리아아랍공화국 특명전권대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장의 로동자들은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눈부신 기적들을 창조하는 위대한 조선인민의 투쟁정신에 감탄을 금할수 없다.

조선에서 이룩되고있는 모든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시는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알렉싼드르 마쩨고라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는 공장의 로동자합숙을 돌아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도부가 로동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큰 관심을 돌리고있는가를 잘 알게 되였다, 침실과 편의봉사시설을 비롯하여 훌륭히 꾸려진 로동자합숙은 공장로동자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해주는 행복의 보금자리이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손님들은 평양가방공장을 참관하였다.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집회

남포항에서 진행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집회가 7일 남포항에서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남포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집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빠나마국적선박 《카이썽》호, 자메이카국적선박 《뉴 글로벌》호, 피지국적선박 《젠주》호의 선장, 선원들이 참가한 집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뜻깊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걸출한 령도자이시며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김정일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십성상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조국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 전변시키시고 세계자주화위업을 승리적으로 이끌어오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각하를 모시여 오늘 조선의 존엄과 국력은 만천하에 더욱 높이 떨쳐지고있다고 그들은 격찬하였다.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우리 인민이 조국통일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집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새해에 즈음하여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연회 마련

주체106(2017)년 새해에 즈음하여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7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왕가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부주석, 공현우 외교부 부장조리, 왕아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 부장조리, 자국위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조판공실 부주임, 무동화 중조우호협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지재룡 중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습근평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중친선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나라와 말레이시아 정부사이의 량해문 조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사이의 문화, 예술, 유산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량해문이 조인되였다.

김정숙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위원장과 다또 스리 모하메드 나즈리 빈 아브둘 아지즈 관광 및 문화상이 량해문에 수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강원도소아병원 의료일군들

미래를 위해 바쳐가는 뜨거운 정

지난해 11월 14일은 강원도소아병원 의료일군들에게 있어서 예사로운 날이 아니였다.

바로 이날에 뜻하지 않은 일로 사경에 처했던 한 소녀가 건강을 회복하고 병원문을 나섰던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환송을 받으며 고향으로 떠나는 소녀의 밝은 모습에 조국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이곳 의료일군들의 헌신의 자욱이 력력히 어려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성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있는 보건일군들이 지녀야 할 정신도덕적풍모입니다.》

이름 김금별, 나이 12살, 고향 무산군 림강리…

금별이가 의식을 잃은채로 도당위원회일군들과 야영소종업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 병원에 실려왔을 때 병상태는 매우 위급했다.

《의사선생님, 금별이를 꼭 살려주십시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금 금별이를 비롯한 야영생들의 소식을 기다리고계십니다.》

《원장선생, 어서 결심을 내리십시오. 우린 병원의료집단을 믿습니다.》…

절절한 목소리들이 원장 박정애동무를 비롯한 이곳 의료일군들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의료일군들은 그 목소리들을 우리 후대들을 위해 천만금도 아끼지 않고 이 세상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는 어머니당의 절절한 당부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제도에 대한 인민의 굳은 믿음으로 새겨안았다.

자기 한몸을 바쳐서라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속에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꿈같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있는 피해지역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지켜야 한다는 우리 시대 보건일군의 자각과 불같은 맹세가 심장마다에 세차게 고동쳤다.

그러나 금별이에 대한 치료는 결코 순탄치 않았다.

병원의료집단의 힘으로 과연 이 애를 살려내겠는가 하는 우려들이 적지 않았다. 어린 금별이가 그처럼 어려운 치료를 이겨낼수 있겠는가고 걱정을 앞세우는 사람들도 있었다.

바로 이때 기술부원장 서덕수동무의 손을 뜨겁게 잡는 사람이 있었다.

원장 박정애동무였다.

《기술부원장동무, 금별이를 무조건 살려내야 합니다. 이 애도 따사로운 해빛을 받아 북받은 대지에 뿌리를 내린 꽃망울이 아닙니까. 우리가 금별이의 부모가 됩시다.》

병원의료일군모두의 관심속에 드디여 금별이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였다.

한초 또 한초…

긴장한 시간이 흘러 금별이는 병원에 실려온지 꼭 하루만에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다.

이때부터 소아병원에서의 십여일이라는 기간은 마치 금별이를 위해 흘러간듯싶었다.

해빛이 제일 잘 들고 문화용품들이 일식으로 갖추어진 그의 치료실이 따로 꾸려졌다.

록음기에서는 금별이가 동무들과 함께 즐겨부르던 노래들이 흘러나왔고 식탁에는 그가 특별히 좋아하는 사과며 김치가 꼭꼭 오르군 했다.

약물치료가 꾸준히 진행되는것과 함께 영양보충을 위한 갖가지 보양음식들도 금별이의 구미에 맞게 보장되였다.

그가 입원한 호실로는 도의 일군들과 야영소의 종업원들, 병원의 의료일군들과 그 가족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칠새없이 찾아왔다.

금별이가 순간이라도 적적해할세라 때없이 찾아와 이마도 짚어보고 재미나는 이야기도 들려주며 사랑과 정을 기울여준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를 키워주고 지켜주고있는 고마운 사랑의 품으로 금별이의 마음속에 새겨졌다.

퇴원을 앞두고 금별이는 자기가 소중히 간직하고있던 수첩을 담당의사였던 최윤희동무에게 쥐여주며 부탁했다.

자기를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해준 장혜숙, 김미향동무들을 비롯한 병원의 의료일군들과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꼭 적어달라는것이였다. 윤희동무는 그러는 금별이를 꼭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래그래, 그 고마운 사람들을, 위대한 어머니당의 품을 언제나 잊지 말아라.》

그리고는 수첩에다 이렇게 써주었다.

《우리의 아버지 김정은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이라고.

금별이는 그 수첩을 품에 안고 병원문을 나섰다.

본사기자 김성민

나라의 내화물공업발전에 이바지한 자랑찬 성과

단천지구광업총국 내화물연구소의 과학자들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정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우리 나라 내화물공업을 자랑찬 과학연구성과로 받들어오는 과학자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지난 50년간 수백건의 중요연구과제를 훌륭히 수행하여 나라의 내화물공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단천지구광업총국 내화물연구소의 과학자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마그네사이트와 흑연, 규석과 희토류광물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에 풍부한 자원과 우리의 기술로 세계적인 패권을 쥘수 있는 경제분야를 개척하고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합니다.》

창립 50돐을 맞는 내화물연구소의 전투장마다에는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쳐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려는 이곳 일군들과 과학자들의 불같은 열의가 뜨겁게 굽이치고있다.

단천지구광업총국의 지도밑에 연구소에서는 과학교육의 해인 올해에 당이 안겨준 과학기술룡마의 고삐를 억세게 틀어잡고 강원도정신으로 마그네사제품생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가고있다.

전력소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한 투쟁이 그 어느때보다도 활발히 진행되는 속에 유연생산체계가 수직로들과 회전로들에 전면적으로 도입되여 경소마그네사생산의 밝은 전망도 열리고있다.

가슴후련한 연구실적을 대할때마다 이곳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나라의 내화물공업발전을 위해 쌓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되새겨본다.

천리혜안의 비범한 예지로 나라의 내화물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과학연구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56(1967)년 2월 8일 단천지구에 내화물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국가과학원 규산염연구소 단천분소(당시)를 창립해주시고 여러차례에 걸쳐 과학자들에게 수행하여야 할 과업과 그 집행을 위한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마그네사제품생산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주체화, 과학화, 현대화, 다종화를 실현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대로 내화물공업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불면불휴의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 우리 나라 연료에 의한 새로운 경소마그네사소성로를 연구완성한 과학자에게 뜨거운 축복을 안겨주시며 영웅으로, 박사로 온 나라에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대해같은 사랑의 이야기는 오늘도 과학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기술발전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기본열쇠로 틀어쥐고 내화물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렇듯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속에 단천지구광업총국 내화물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내화물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수많이 해결하여 지난 50년간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여왔다.

과학자들은 수백리구간의 룡양지구 채굴장들에 대한 전면로해사업을 진행하여 우리 나라 마그네사이트광석의 매장량과 특성을 완전히 해명하고 우리 식의 새로운 시험법으로 마그네사크링카생산의 과학기술적기초를 마련하였다.

우리 나라 연료로 마그네사크링카를 생산할수 있는 공업화시험을 다그쳐 단천마그네사공장의 48m회전로에서 립광에 의한 경소마그네사생산방법을 확립하고 새로운 고속도생산방법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2배로 높이는것과 함께 소성로면지로 단광을 만들어 경소마그네사를 생산하는 등 이들이 이룩한 과학연구성과는 대단히 많다.

이뿐만이 아니였다.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더 많은 경소마그네사비료를 생산하여 농촌들에 보내줄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질좋은 수산화마그네사비료를 만들어 나라의 농업생산을 높이는데 적극 기여하였으며 마그네사부산물로 류산마그네사세멘트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마그네사제품의 다종화실현의 돌파구도 열어놓았다.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주체적인 립장에서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벌려 마그네사제품생산공정들에 회전기류식먼지잡이장치를 도입하고 마그네사이트분말과 마그네사크링카부산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재소성하는 방법으로 년 100만이상의 광석을 절약하였으며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마그네사제품생산과 질개선을 위한 과학연구에서 혁혁한 성과를 이룩하며 경제적실리가 큰 운동용미끄럼방지가루를 개발하고 수직로와 회전로운영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도 원만히 해결하여 경소마그네사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가져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과학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경제봉쇄를 자랑찬 과학연구성과로 단호히 짓부실 일념으로 줄기찬 연구전투를 벌려 우리 식의 새로운 경소마그네사용 집적형가소로와 우리 나라 텅어리무연탄에 의한 마그네사크링카생산방법을 확립하였다.

우리 식의 CNC화프로그람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하신 집적형가소로에 유연생산체계를 확립하였으며 3종의 부정형내화물을 개발도입하여 로들의 수명은 1.5배로 늘었고 차지당 내화물소비량은 30%나 줄이였다. 그리고 쓸모없이 버려진 부선미광에 의한 류산마그네시움비료생산에서 완전히 성공하여 나라의 농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단천지구광업총국 내화물연구소가 걸어온 50년의 력사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피심속에서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한길을 걸으며 나라의 내화물공업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공업으로 당당히 올려세운 자랑찬 승리의 력사이다.

＊　　＊

오늘도 이곳 내화물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세계를 앞서나갈 원대한 포부를 안고 부강조국건설의 전투장들마다에서 피타는 사색과 탐구를 바쳐가며 과학연구의 머나먼 길을 꾸준히 걸어가고있다.

우리 당 붉은 기폭에 새겨진 붓대를 소중히 가슴에 새겨안고 오직 어머니당을 따라 한길만을 걸어온 우리의 과학자들, 자나깨나 높은 첨단과학연구성과로 내 조국을 떠받들 불보다 뜨거운 애국의 열정과 흰눈처럼 깨끗한 마음을 간직한 이들을 조국과 인민은 소리높이 자랑한다.

특파기자 김경철

온 나라에 메아리치는 친근한 부름, 영원한 우리 어버이

절절한 그리움이 넘치는 철의 도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

지난해 70일전투의 나날에 전형단위로 자랑떨친 황해제철련합기업소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의 자욱이 그 어느곳보다 많이 새겨져있는 단위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려 수십차례에 걸쳐 이곳을 다녀가시였는데 현지지도로정을 다 합치면 8천여리에 달한다. 그 수천리 장정의 제일 마지막로정은 황철의 강철직장과 잇닿아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을 애국의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헤쳐오신 애국헌신의 장정은 우리 조국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부강조국건설의 만년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변이 나는 해였던 2009년에도 또 그 다음해에도 강철직장을 찾으시였던 우리 장군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면 황철사람들은 너나없이 눈물부터 앞세운다. 그들중에서도 2009년 5.1절을 평양에서 뜻깊게 경축한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격정은 류달리 뜨겁다.

《어느덧 8년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모든 일은 지금도 어제일이런듯 눈에 생생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뜻깊은 5.1절에 공훈국가합창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하는 남다른 행복을 지닌 강철직장 생산부원 리성철동무는 이렇게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언제 공연이 시작되고 끝났는지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다. 기억하는것은 오직 자기들과 똑같은 의자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공연을 관람하시던 어버이장군님을 하염없이 우러르던 생각뿐이라고 한다.

5.1절의 하루는 참으로 꿈같이 흘러갔다. 황홀한 축포야회, 국가연회…

그들이 평양에서 돌아오던 날은 온 송림시가 명절처럼 흥성거렸다고 한다. 평양에서 5.1절경축의 주인공으로 행복의 단상에 올랐던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들을 한시바삐 만나보고싶어 온 송림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건만 몇시간전부터 거리를 꽉 메우고 바다처럼 설레였다.

감격의 열파에 휩싸였던 그날 누구보다도 격정으로 가슴들먹인 사람들은 황철에 탄원해온 수백명 제대군인들이였다. 바로 두달전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찾으시였던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황철로 탄원한 그들이 환영의 꽃물결에 떠받들려 철의 도시 송림땅에 들어선것은 불과 보름전이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믿음을 받아안은것만도 가슴벅찬데 그들모두에게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까지 안겨주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 그이께서는 아직 일터에 제대배낭도 풀지 못한 그들을 혁신자들과 나란히 성대한 축포야회에 불러주시고 분에 넘친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던것이다.

일을 하자, 한시바삐 보답하자, 오직 이 하나의 열망이 제대군인들의 가슴을 쇠물처럼 끓여주었다. 그들은 22만kVA변전소건설을 한해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끝내였으며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선봉대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치였다.

당시 제대군인들을 대표하여 황철사람들앞에서 불같은 맹세를 다졌던 어제날의 해병 리일광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2009년은 전기로가 생겨서 황철이 최고실적을 낸 잊지 못할 해였습니다. 150일전투, 100일전투로 온 나라가 끓어번지던 그 나날에 하루에 쇠물 5차지라는 놀라운 기적은 평범하게 기록되였습니다.》

1년도 안되여 황철은 또다시 그렇게 어버이장군님을 맞이하였다.

강철직장이 지난해에 왔을 때보다 많이 달라졌다고 기뻐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는 용해공들의 구리빛얼굴들은 어느새 눈물로 화락 젖어들었다. 꿈결에도 뵙고싶던 어버이장군님을 만나뵈왔건만 수척해지신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는 순간 우리가 일을 제대로 못해 장군님께서 또 이렇게 오시였구나 하는 자책감에 기쁨보다도 죄스러움이 먼저 앞섰던것이다.

하건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용해공들이 수고를 많이 하였는데 그들과 같이 100t초고전력전기로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생각조차 못했던 영광을 안겨주시니 세상에 이토록 뜨거운 어버이사랑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되여 수백명 제대군인들중의 두 사람인 강철직장의 박명식, 김명일동무들은 제대되여 첫 사진, 용해공이 되여 첫 사진을 어버이장군님을 모시고 찍는 복을 받아안은 행운아들이 되였다.

그들의 하루는 그 기념사진앞에서 시작되고 그 기념사진앞에서 총화된다.

어버이장군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은 날 최전연의 전우들에게 제일먼저 편지를 써보냈다는 김명일동무는 한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처녀와 한가정을 이루었다. 그날 신랑, 신부는 어버이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첫날옷감으로 새옷을 지어입고 만사람의 축복속에 결혼사진을 찍었다. 그만이 아니라 제대군인들 누구나가 래일의 안해가 될 처녀의 첫날옷감까지 보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친어버이사랑에 떠받들려 새 집에서 새 가정을 이루었다.

아버지처럼 황철사람으로 불리우는것을 가장 큰 영예로 생각하는 박명식동무는 잘 익은 쇠물을 뽑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면서 출강할 때마다 5.1절 그날의 눈부신 축포가 떠오른다고 생각깊이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철직장에 찾아오셨던 7년전 그날 조종실에서 로의 작업모습을 보여드린 100t초고전력전기로의 작업반장 손흥종동무는 해마다 우리 장군님을 일터에 모셨던 그날이 오면 가슴이 젖어든다고, 쇠물을 많이 뽑으면 우리 장군님 생각 더 간절해진다며 조용히 눈굽을 훔치였다.

어버이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황철에 탄원해온 제대군인들이 오늘은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고 황철의 믿음직한 강철기둥들이 되였다. 그들을 두고 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인 박원석동무는 이렇게 진정을 토로하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 품들여 키워주신 제대군인들이 오늘 황철의 바통을 이어가고있습니다. 황철의 래일까지도 굳건히 담보해주신 장군님의 그 은덕을 우리 어찌 한시인들 잊을수 있겠습니까.》

철은 강국의 기둥이다. 철이 있어야 총도 나오고 기계도 나오며 쌀도 나오고 사랑도 나온다.

이 뜻깊은 2월에 황철의 쇠물은 과연 무엇으로 하여 더 세차게 끓는가.

주체철로 우리 장군님의 영생을 지켜갈 정신력의 최절정—그리움이다. 일편단심 장군님의 뜻을 꽃피워 당을 받들어갈 삶의 피줄기—그리움이다.

34년간을 조피공으로 일했다는 기명찬동무의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는다.

《못난 자식에게 더 왼심쓰는 어머니처럼 당에선 우리 황철을 늘 앞자리에 세워주는데 제구실을 못할가봐 그게 늘 걱정입니다.》

본사기자 조향선

=다심한 사랑은 그 어디에나=

군밤, 군고구마향기

가을에는 물론 한겨울에도 수도의 어디서나 볼수 있는 이채로운 풍경이 있다.

고구마와 밤굽는 냄새가 구수하게 풍기는 곳마다에서 웃음꽃을 피우는 수도시민들의 모습이다.

우리 장군님께서 인민들에게 안겨질 한알의 군밤을 두고 얼마나 마음쓰시였는가를 아는 사람들은 아마도 많지 못할것이다.

평양시 거리들에 고구마나 밤을 구워 파는것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리 사회가 발전하여도 이런 풍경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고난의 나날에도 수송과 봉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해주신 어버이장군님이시였다.

여러 구역의 매대들에 일군들을 파견하시여 시민들이 사먹는 군밤들을 가져오도록 하시고 손수 한알한알 쪼개보시며 상한 밤알들을 두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던 우리 장군님, 인민들에게 상하지 않고 생신한 군밤과 군고구마를 팔아줄데 대해 간곡하게 가르치시던 장군님의 그 당부는 오늘도 인민사랑의 메아리되여 울려퍼지고있다.

사람들이여, 먼 후날에 가서도 부디 잊지 마시라.

한알한알의 군고구마, 군밤에 깃든 다심한 그 은정을.

고기쟁반국수

오늘 옥류관과 청류관을 비롯한 급양봉사기지들에서 손님들이 즐겨찾는 음식이 있다. 고기쟁반국수이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어느날 대중봉사를 하고있는 고기쟁반국수를 받아오도록 하시여 몸소 그 맛까지 보아주신 어버이장군님께서 남기신 교시는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인민들이 식량사정이 곤난하여 배불리 먹지 못하기때문에 이따금 고기쟁반국수를 먹을수 있게 봉사하도록 닭고기를 비롯한 원자재보장체계를 세워주고 고기쟁반국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강습과 방식상학도 조직해주도록 하였다고 하시며 손수 고기쟁반국수에 놓아주는 고기량까지 가늠해보시였다.

새로 꾸리는 닭공장들에서 나오는 닭고기를 풍부하게 쓰고 거기에 여러가지 양념을 잘하면 궁중음식인 어복국수보다 맛도 영양가도 못지 않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몸소 고기쟁반국수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신 어버이장군님.

인민들에게 이 세상 제일 좋은것을 마련해주시려고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며 한몸을 초불처럼 태우신 그 불같은 헌신의 하루하루속에 오늘의 만복의 씨앗이 마련된것 아니겠는가.

《은방울》 껌

인민들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리 제품들속에는 어버이장군님께서 100점짜리라고 높이 평가하신 평양껌공장에서 생산하는 《은방울》껌도 있다.

평양시에 껌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하여 우리 인민들과 어린이들에게 껌을 공급해주자고 하시며 전선시찰의 길에서 껌공장건설구상을 무르익히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몸소 공장터전까지 잡아주시고 강력한 건설력량과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도록 하시였다.

첫 제품이 나왔을 때 껌의 상표이름을 《은방울》이라고 달도록 해주신분도 바로 우리의 장군님이시다.

새 제품이 나올 때마다 질은 어떤가, 인민들이 좋아하는가를 물으시며 인민의 행복넘친 모습에서 가장 큰 기쁨을 찾으시던 어버이장군님.

달리는 야전차안에서도 《은방울》껌을 보아주시며 우리 인민들과 어린이들에게 질좋고 향기로운 껌을 더 많이 안겨주시려고 심혈을 기울이시던 장군님의 그 로고를 무슨 말로 다 전할수 있겠는가.

껌 한개의 무게는 몇g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작은 껌에 실린 우리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무게는 그 무엇으로도 다 헤아릴수 없다.

본사기자

그날의 뜨거운 은정 전하며

황해북도 은정축산전문협동농장 김귀남동무의 가정을 찾아서

한없는 그리움으로 천만군민의 가슴가슴이 더더욱 젖어드는 2월.

얼마전 황해북도 은정축산전문협동농장 농장원 김귀남동무의 가정을 찾았던 우리는 어버이장군님을 그리고 또 그리는 우리 인민의 마음이 어찌하여 그렇듯 강렬하고 뜨거운것인가를 깊이 느낄수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애국의 마음에는 언제나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꽉 차있었습니다.》

희디흰 살림집벽체며 규모있게 둘러친 울타리와 깨끗이 정리된 터밭 그리고 아담한 메탄가스생산시설…

도시부럽지 않은 농촌문화주택의 모습에서 눈길을 뗄줄 모르는 우리를 집안으로 이끌며 김귀남동무의 안해 임연옥동무는 말했다. 그는 봉산군 은정고급중학교 교원이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저희들의 집을 찾으신 날은 10여년전인 2003년 6월 13일이였습니다. …》

은정리에서 태여난 그들부부는 한마음한뜻으로 사회주의농촌진지를 지켜가고있었다.

선군혁명령도의 길에서 그들의 집을 찾으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남편인 김귀남동무에게 군사복무를 어느 부대에서 하였는가, 겨울에 방안이 춥지 않은가, 자식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며 공부는 잘하는가를 다정히 물어주시였다. 이어 새 문화주택의 살림방들과 부엌, 터밭을 일일이 돌아보시는 그이의 모습은 그대로 세간난 자식의 집을 찾은 친아버지의 모습이였다.

임연옥동무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날 병사시절의 그 정신으로 당의 축산정책관철에 전심전력을 다하고있는 남편의 소행을 치하해주시고 나라에서 지어준 훌륭한 문화주택에서 사는것만큼 항상 문화적으로 생활하여야 한다고, 메탄가스화를 빨리 완성하며 집주변에 줄당콩을 많이 심어 농촌풍경에 어울리게 하여야 한다고 차근차근 가르쳐주시였다고 격정에 겨워 이야기했다.

그러던 그가 문득 일어나 우리들에게 사진첩을 꺼내주었다.

발그레한 볼에 함뿍 웃음을 담은 두 녀병사의 사진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임연옥동무는 그 애들이 바로 10여년전 아버지장군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지닌 귀옥이와 현옥이라고 웃으며 말해주었다.

그날의 철부지들이 벌써 어엿한 인민군병사가 되였으나 어버이장군님의 따뜻한 사랑의 체취는 10여년전이나 오늘이나 여전히 우리 집의 곳곳에 력력히 깃들어있다고 하며 임연옥동무는 젖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세간난 자식의 집을 찾은 친아버지의 심정으로 철없는 귀옥이와 현옥이에게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일깨워주시던 어버이장군님의 다정한 음성이 늘 정겹게 울려와 언제나 따스한 우리 집입니다.》

따스한 우리 집!

후더워오르는 심정을 안고 사랑의 자욱이 깃든 집을 나서며 우리는 다시금 절감했다.

위대한 장군님은 정녕 온 나라 천만군민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자애로운 친아버지이시다.

본사기자 김치곤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정성껏 키워가고있다.
—대동강구역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축복받은 삶의 노래

행복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새삼스러운감도 없지 않지만 2월의 명절이 다가올수록 나는 한생을 돌이켜보며 이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은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어머니이며 삶과 행복의 요람입니다.》

80살에 이른 오늘에도 교단에서 우리의 주체예술을 떠메고나갈 가수후비들을 키워가고있는 나의 한생을 두고 사람들은 참으로 복받은 삶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내가 인생의 로년기에도 청춘의 열정에 넘쳐 제자들을 가르치고있는것은 결코 타고난 재간이 있어서나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다.

57년간의 교단생활을 총화해볼 때 나에게 남은것이 있다면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제자들이다.

리향숙, 리성철, 조혜경, 장영옥, 전명희, 로은별…

하다면 해방전 철도로동자의 딸이였던 내가 어떻게 되여 우리 나라 음악예술인재육성의 높은 교단에서 한생을 그리도 긍지높이 빛낼수 있었는가.

나는 어려서부터 가수가 될 희망을 안고있었다. 해방이 되여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속에 평양음악대학(당시)에 입학하였을 때 나의 가슴은 부풀었다. 어머니당의 사랑과 은정이 넘치는 교정에서 나는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고싶었던 소원, 훌륭한 가수가 되고싶었던 소원을 이루게 되였다.

대학기간 나는 대학에서 창조한 여러 단막가극에서 주요인물들의 역형상을 맡아하였다.

그후 당의 크나큰 믿음으로 대학교단에 서게 되였다. 그때부터 성악교원으로서의 나의 생활은 어버이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속에서 흘러갔다.

지금으로부터 15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공연을 관람하시는 자리에서 한 녀배우의 기량을 평가하시며 그를 키운 스승에 대해 물어주시였다. 그가 바로 나였다. 교원에게 있어서 자기가 키운 제자들이 빛을 낼 때만큼 기쁘고 자랑스러울 때는 없다. 하물며 어버이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하신 제자를 둔 스승의 기쁨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녀배우를 키운 스승을 후날 꼭 만나주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남기시였다. 그 약속을 지키시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얼마후에 나를 몸가까이에 불러주시였다.

인민의 사랑을 받는 훌륭한 성악가수들을 키워낸 나의 공로를 헤아려주시며 은정깊은 사랑을 부어주실 때 나는 이 세상에 나처럼 행복한 교육자가 또 있으랴 하는 격정으로 가슴들먹이였다.

그후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차례 예술인후비육성에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는 평범한 교원인 나에게 대를 두고 깊이 전한 사랑의 선물도 안겨주시고 영광의 대회장에도 거듭거듭 불러주시였다.

어찌 그뿐이랴.

후대교육사업에 열중하는 나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어버이장군님께서는 귀한 보약재도 보내주시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 참관단성원으로 보내주시는 은정도 베풀어주시였다.

내가 70돐생일을 맞는 해에는 대학에서 제자들과 함께 화려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사랑의 조치도 취해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가슴뜨겁다. 이 세상에 교육자들이 많다한들 나처럼 행복한 교육자가 어디에 있겠는가.

뜻깊은 2월의 명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이 시각 꿈결에도 뵙고싶은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안고 나는 노래를 부른다.

푸른 꿈 키워준 그 손길 없다면
내 마음 날개없는 새와 같으리
장군님 안겨준 따사론 사랑이
나의 희망 꽃피웠네
…

진정 위대한 장군님의 따사론 사랑속에 흘러온 축복받은 삶을 나는 목청껏 자랑하고싶다.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교원 교수 장명숙

인민경제의 생명선 송전선을 지켜 30여년

함경북도송배전부 산줄작업반 반장 박장학동무

인간은 누구나 한생을 보람있게 살기를 바란다.

하다면 인생의 보람은 어디에 있으며 값있는 한생은 어떻게 시작되고 꽃펴나는것인가.

순결한 애국의 마음을 안고 지난 30여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보건말건 고압전류가 흐르는 송전선을 믿음직하게 지켜온 함경북도송배전부 산줄작업반 반장 박장학동무의 값높은 삶이 그에 대한 생동한 대답으로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앞에서도 주저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참된 애국의 한길을 걷는 사람, 조국과 인민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제때에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이 진짜애국자입니다.》

박장학동무가 산줄공이 될것을 결심한것은 30여년전이였다.

보람찬 군사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포부도 크고 희망도 많았다.

그의 가슴속에는 혁명의 총대를 틀어쥐고 조국의 전초선을 지켜섰던 그 정신으로 인민경제의 생명선인 송전선을 지켜갈 결심이 굳게 자리잡았다.

이렇게 되여 박장학동무는 산줄공이 되였다.

산줄작업은 생소하였고 생각처럼 헐치 않았다. 아직은 눈에 설고 손에 익지 못한 작업이였다. 수십kg이나 되는 무거운 작업공구들을 메고 험한 산골길을 하루에도 수십리씩 걸어야 했고 아찔하게 높은 철탑에도 올라가야 하였다. 그는 하루빨리 산줄작업묘술을 익히고 높은 기능을 소유하기 위해 이악하게 노력하였다. 남들이 다 자는 깊은 밤에도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해 한밤을 지새웠다. 도서관을 비롯하여 여러 단위들을 찾아다니며 과학기술지식의 탑도 쌓았다.

애써 노력한 보람으로 그는 몇년동안에 기술기능수준이 높은 산줄공이 되였다. 그리고 얼마후에는 어엿한 작업반장으로 성장하였다.

철탑우에서 전류가 흐르는 송전선을 타고 진행하는 산줄작업이지만 박장학동무는 수십년세월 순간의 주저나 동요도 없이 삶의 순간순간을 애국의 열정으로 불태우며 끝간데없이 뻗어간 송전선들에 헌신의 자욱을 수놓아갔다.

서두수발전소 송전선의 어느 한 구간에 대한 보수정비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작업준비를 하던 작업반원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박장학동무가 아픈 다리를 끌고 작업반실로 들어서는것이였다.

《시간을 다투는 산줄작업이 제기되였습니다. 빨리 갑시다.》

작업공구를 메려는 그를 작업반원들이 막아나섰다.

《반장동지, 그 몸으로는 안됩니다.》

얼마전 박장학동무는 높이가 10m나 되는 철탑에 올라가 작업하다가 그만 떨어져 대퇴골을 상하였다. 그때 의료일군들은 산줄작업과 같은 힘든 일은 하지 못하니 경로동을 해야 한다는 처방을 내리였다. 송배전부 일군들도 그에게 지금까지 해놓은 일도 많은데 이제는 쉬운 일을 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는 일군들과 작업반원들에게 박장학동무는 말하였다.

《저는 철탑을 떠나면 살지 못합니다.》

웃으며 하는 말이였지만 작업반원들은 뜨거운것이 치밀어오르는것을 금할수 없었다.

그는 남달리 자기 직업을 사랑하였다.

지난 10여년간 도안의 여러 부문들에서 생산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할수 있은데는 인민경제의 생명선인 송전선을 지켜선 그의 헌신의 마음이 뜨겁게 슴배어있다.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협동밑에 수입에 의존하던 산줄작업복을 입지 않고 송전선보수정비를 할수 있는 현실적가능성을 찾아내여 국가에 많은 리익을 준것도 박장학동무의 남모르는 사색과 열정을 떠나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하기에 일군들은 불편한 몸이지만 웃으며 작업반원들속에 어울려 또다시 송전선보수정비를 위한 길에 나선 박장학동무의 앞을 막아나서지 못하였다.

청진시의 한 방송국의 안테나가 센 바람에 의해 끊어졌을 때였다. 그때에도 그는 방송을 순간도 중단할수 없다고 하면서 철탑우에 올라가 작업을 지휘하여 육중한 안테나를 6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다시 설치할수 있게 하였다. 서두수발전소 송전선의 어느 한 구간이 진눈까비로 단락되였을 때에도 그는 수십리나 되는 산길을 남먼저 달려가 밤새껏 전투를 벌려 해당 단위들에 전기를 중단없이 보내줄수 있게 하였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와 혜산—삼지연넓은철길공사장을 비롯하여 그 어디에나 그의 헌신의 발자취가 어려있지 않은 곳이 없었다.

수십년간 그가 지켜선 수천수만리의 송전선들에 새겨진 영웅적위훈의 이야기들을 다 전하자면 끝이 없다.

이 나날 그는 인민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내가 맡은 송전선에 미흡한 점은 없는가.

박장학동무는 늘 이런 생각뿐이다. 그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눈이 오고 비가 와도 가정보다 먼저 송전선을 생각하였다.

박장학동무의 소행을 귀중히 여기고 값높이 내세워준것은 어머니당이다.

당에서는 수십년간 산줄공이 되여 인민경제의 생명선을 변함없이 지켜가고있는 박장학동무에게 김일성청년영예상과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표창을 안겨주었으며 여러 대회들에 불러주는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영광의 대회에 참가한 그는 이렇게 심장의 맹세를 다지였다.

(저는 오늘의 이 영광을 언제나 심장에 새겨안고 송전선을 지켜가는 길에 한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애국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이고 투신이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말로써 대답할것이 아니라 자기 한몸을 내대고 실천으로 대답하는것이 바로 애국자의 자세이며 이 길에 값높은 한생의 참된 보람이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오늘도 그는 인민경제의 생명선인 나라의 송전선을 지켜 보람찬 인생길을 꿋꿋이 이어가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독자의 편지

친딸의 심정으로

혁명선배들을 존대하고 내세울데 대한 어머니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전쟁로병들을 위해 친혈육의 정을 아낌없이 쏟아붓고있는 고마운 사람들을 널리 자랑하고싶어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그들속에는 허천군 상농고급중학교 교원인 리명화선생도 있습니다.

며칠전 문두드리는 소리에 밖으로 나가보니 글쎄 리명화선생이 함뿍 웃음을 담고 우리 집으로 들어서는것이 아니겠습니까.

퇴근길에 들렸다면서 신선한 물고기를 안겨주며 입맛을 돋굴수 있게 매운탕을 해잡수라고 각근히 이야기하는것이였습니다.

교수사업으로 드바쁜 속에서도 늘 잊지 않고 찾아와 입맛이 떨어질세라 아플세라 왼심을 쓰는 그의 모습은 정녕 친딸의 모습그대로입니다.

언제인가 제가 심하게 앓은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는 학생들의 학습지도를 하느라 바쁜 속에서도 우리 집에 짬짬 들리여 저의 병상태를 알아보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었습니다.

빨리 몸을 추세우라고 몸보신에 좋은 보약재와 영양식품들도 가져다주며 힘과 용기를 주던 일, 생일날, 명절날은 물론 때없이 찾아와 저의 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있을세라 친자식된 심정으로 돌봐주던 일이 어제일이런듯 안겨옵니다.

그 뜨거운 진정을 대할 때마다 이런 훌륭한 새 세대들을 키워준 우리 당에 대한 고마움으로 눈굽이 젖어듭니다.

저는 고마운 그 마음, 그 기대를 잊지 않고 전화의 나날처럼 수령결사옹위정신, 조국수호정신을 변함없이 가슴에 안고 살며 투쟁하겠습니다.

허천군 상농로동자구 2인민반 최용렬

김의수전쟁로병의 가정을 찾아 뜨거운 정을 나누고있는 만경대구역청년동맹위원회 일군들과 청년들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북남관계개선의 길로 나와야 한다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온 민족이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립장이다.

지금 우리 공화국은 력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 마흔다섯돐과 10.4선언발표 열돐이 되는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는 매우 의의깊은 해로 빛내이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이것은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겨레의 간절한 통일념원을 실현하기 위한것으로서 해내외 각계각층 동포들의 지지와 찬동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애국애족적인 호소와 진정어린 노력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동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민족사적위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북남관계개선은 평화와 통일에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며 온 겨레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파국상태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수방관한다면 그 어느 정치인도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고 말할수 없으며 민심의 지지를 받을수 없습니다.》

북남관계를 개선하는것은 미룰수 없는 민족사적과제이다.

지금 북남관계는 당국사이의 그 어떤 대화와 협력도 없는것은 물론 민간단체들사이의 래왕이나 접촉도 실현할수 없는 그야말로 최악의 파국상태에 빠져있다. 북남관계의 모진 진통속에서도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며 북남협력의 마지막 보루로 되여오던 개성공업지구가 동음을 멈춘지도 이제는 1년이 되였다.

최악의 현 북남관계를 계속 방치해둘 경우 그것이 어떤 엄중한 후과를 빚어내게 되겠는가 하는것은 2015년의 8월사태를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민족의 운명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북침핵전쟁위험마저 안고있는 현 북남관계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둘수 없다.

북남관계는 반드시 개선되여야 한다. 북남관계개선은 평화와 통일에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북남관계가 개선되면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방지하고 자주적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된다.

그러나 지금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동족의 선의와 아량에 호응해나올 대신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대결소동에 계속 매달리면서 정세를 한층 격화시키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우리의 진정어린 호소에 대해 《전형적인 통일전선공세》라느니, 《남북관계경색의 책임전가》라느니 하고 터무니없이 걸고들면서 대결자세를 조금도 허물지 않고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은 《2017년 업무계획보고》라는것을 하면서 《북핵문제》를 구실로 북남관계개선을 거부할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냈다. 그런가하면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위협과 도발》에 대해 떠들어대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북핵압박공조》와 북침전쟁도발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남조선호전광들은 우리의 평화애호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3월부터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또다시 강행하려 하고있다.

화해와 단합의 손길을 내미는 동족을 무력대고 의심하며 구태의연하게 대결을 고집한다면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개선될수 없다. 현 북남관계의 파국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지금 온 겨레는 백해무익한 동족대결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정상궤도우에 올려세우며 자주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지향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해내외의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이 새해의 시작과 더불어 울려퍼진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호소에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는 성명, 담화, 결의문들을 련이어 발표하고있는 사실, 북과 남, 해외에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개최분위기가 전례없이 고조되고 그 준비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사실 등은 동족사이의 대결과 긴장을 바라지 않으며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기를 바라는 우리 겨레의 강렬한 지향에 대한 뚜렷한 반영이다.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것은 당국자들의 마땅한 자세이다.

민족의 근본리익을 중시하고 북남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기꺼이 손잡고 나아가려는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의지이다.

북과 남이 서로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 통일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노력에는 세기를 이어오는 민족분렬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이 땅우에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애국의 일념과 불같은 진정이 어려있다.

북과 남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손잡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할 동반자이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호소에 담긴 깊은 의미를 새겨보아야 하며 그에 거역해나서는 행위가 가져올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민심의 심판을 받고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힌 박근혜의 대결정책을 답습할것이 아니라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민족의 요구에 하루속히 응해나와야 한다.

누구든지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거역하고 외세와 공조하며 동족을 적대시하고 반공화국대결책동에 광분한다면 민족의 저주와 규탄을 받게 될것이며 력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남조선의 력대 대결광신자들의 비참한 말로도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그들의 운명에서 교훈을 찾아야 하며 동족대결의 낡은 악습과 결별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서 북남관계개선에 나설 용단을 내려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을 전환하여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 관계개선을 지향해나선다면 평화와 통일의 획기적국면이 열리게 될것이다.

우리가 반대하는것은 박근혜와 같은 반통일사대매국세력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이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북남관계개선을 바란다면 기꺼이 함께 손잡고 민족의 운명개척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것이다.

우리가 제안한 통일대회합도 북남당국을 포함하여 각 정당, 단체들과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회합이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남조선당국이 통일의 동반자로서 민족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자는 동족의 애국애족적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북남관계개선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일치하게 주장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더 늦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그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라 설 하

민족적분노를 자아내는 비렬한 차별행위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하여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제재책동에 악랄하게 매여달리고있는 일본반동들이 그 일환으로 재일조선인들의 신성한 민족교육사업에까지 검은 마수를 뻗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얼마전 일본의 오사까지방재판소는 외국인학교들가운데서 유독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조성금의 지급을 중지하기로 결정한 오사까부와 오사까시당국의 부당한 조치를 두둔하면서 이에 대한 오사까조선학원측의 정당한 제소를 기각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이것은 일본특유의 민족배타주의정책의 집중적발로이고 오랜 세월 지속되여오는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으로서 우리 동포들의 민족교육권리를 짓밟는 불법무법의 파쑈적폭거이며 반공화국, 반총련적대의식이 골수에까지 꽉 들어찬자들의 비렬하고 유치한 망동이 아닐수 없다.

우리 동포들에게 과중한 재정적부담과 심리적압박감을 들씌우고 나아가서 그들을 우리 공화국과 총련의 품에서 떼여내보려는것이 일본반동들의 간특한 속심이다.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을 파탄시키고 재일동포사회의 미래를 짓밟아버리려는 일본반동들의 뿌리깊은 흉심은 이번에 다시금 낱낱이 드러났다.

재일조선인학교들에 대한 교육조성금문제는 결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다. 지난날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일본땅에 끌려간 조선사람들의 후손들이 공부하는 재일조선인학교들이 일본학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것은 응당하다.

과거 일제가 저지른 범죄로 보나 교육학적견지에서 보나 일본당국에는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권리를 존중하고 그것을 보장해주어야 할 법적, 도덕적의무가 있다.

하지만 지금껏 일본당국은 그 무슨 《국민의 리해》가 어떻다느니, 《교육내용점토》결과가 어떻다느니 하고 생억지를 부리고 나중에는 조선학교들을 《순수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이데올로기학교 및 대일공작기관》이라고까지 헐뜯으면서 그에 대한 지원을 한사코 거부해왔다. 지난해 3월 일본의 문부과학상이라는자가 조선학교들에 대한 보조금지급을 재점토하도록 각 도, 도, 부, 현들에 내리먹인 사실도 그것을 실증해준다.

재일조선인학교들이 저들의 교육조성금지원을 받으려면 조국과 총련과의 런계를 끊으라는것이 일본당국의 요구이다. 이 얼마나 파렴치한 론리인가.

우리 동포학생들이 조국을 따르는것이 무슨 죄이고 자기 나라의 말과 글을 배우려는것이 또 무슨 죄란 말인가.

오사까지방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국제법과 일본의 현행법에 로골적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다. 국제인권협약에는 외국인들에게 동등한 교육권리를 보장할데 대한 내용이 규제되여있다. 일본의 교육기본법에도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도 일본의 오사까지방재판소는 이 모든것을 무시하였다. 국제협약과 저들의 현행법도 아랑곳없이 행정당국의 후안무치한 처사를 정당화한 오사까지방재판소의 판결은 사법의 반동화가 날로 촉진되고 반공화국, 반총련광풍이 만연되고있는 일본의 험악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조치 하나만 놓고서도 일본반동들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이 얼마나 집요하고 악랄한가 하는것을 가늠할수 있다. 조선사람이라는 단 한가지 리유로 재일동포들에게 가해지는 이런 부당한 민족차별행위는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일본당국은 내외여론의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재일조선인학교들에 대한 지원문제를 신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우리는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문제를 그 어떤 정치적, 외교적흥정물로 써먹으려는 일본반동들의 너절한 음모책동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며 날로 악랄해지는 일본당국의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에 강력히 대응해나갈것이다.

허 영 민

남조선언론이 규탄

민심에 도전하는 《싸드》배치책동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3일 인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싸드》배치를 강행하는 괴뢰패당의 책동을 규탄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2일 미국방장관이 남조선을 행각하여 황교안, 김관진에게 《싸드》배치를 계속 추진할것을 요구한데 대해 밝혔다.

이로써 미국방장관의 이번 행각목적이 《싸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데 있다는것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사설은 지적하였다.

사설은 무엇에 쫓기듯 서둘러 《싸드》배치가 결정되였으며 민중의 반대여론과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적으로 추진되고있다고 까밝혔다.

사설은 박근혜《정권》의 대표적인 페단으로 손꼽히는 성노예문제《합의》, 력사교과서《국정화》와 함께 《싸드》배치결정은 추진과정부터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 치명적인 훼손이라고 규탄하였다.

황교안이 《싸드》배치문제뿐아니라 성노예문제, 력사교과서문제 등 박근혜《정권》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립장을 표명하였다고 사설은 단죄하였다.

사설은 박근혜《정권》의 페단을 옹호하고 유지관리해나가려는 황교안은 청산대상이라고 강조하였다.

＊　　＊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3일 남조선의 《싸드》배치저지전국행동을 비롯한 단체들이 3일 서울의 롯데백화점앞에서 《싸드》배치부지를 제공하려는 재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이날 롯데그룹이 성주골프장을 《싸드》배치부지로 제공하는 문제를 공식론의하기 위한 리사회를 가진데 대해 밝혔다.

《정부》가 미국방장관의 남조선행각과 발을 맞추어 《싸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롯데측에 압력을 가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있다고 그들은 비난하였다.

그들은 《싸드》배치부지제공이 롯데의 또 다른 뢰물행위로 간주될것이라고 규탄하였다.

이날 《싸드》배치저지전국행동, 《싸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싸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박근혜《정권》의 최악의 외교안보정책으로 평가되는 《싸드》의 남조선배치가 박근혜탄핵안가결이후에도 그대로 강행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주민들과 《국회》의 동의없이 《싸드》를 배치하여 민중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것을 보고만 있을수 없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극우보수단체들의 막후조종자

지금껏 《어버이련합》, 《자유총련맹》을 비롯한 극우보수단체들은 박근혜역도가 내놓는 정책이라면 그것이 반인민적이든 매국적이든 가리지 않고 무작정 지지하고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들과 인사들에 대한 위협공갈행위를 공공연히 감행하면서 괴뢰정권의 충실한 파수군노릇을 하여왔다.

그런데 최근 청와대가 이 악질보수패거리들을 매수하고 막후에서 조종하며 박근혜《정권》을 지지하는 집회와 시위에 내몰아왔다는 사실이 련이어 폭로되여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청와대것들은 보수단체관계자들을 몰래 불러들여 집회지시를 주었는가 하면 집회구호까지 지정해주었다고 한다.

남조선의 한 언론이 전한데 의하면 력사교과서《국정화》에 대한 사회 각계의 반대여론이 높아가던 지난 2015년 10월 청와대의 행정관이라는자는 박근혜역도의 충동에 따라 보수단체들에 력사교과서《국정화》를 지지하는데 총력을 집중하라는 지령을 내리였다. 청와대것들은 그해 10월 27일 박근혜역도가 《국회시정연설》이라는것을 할 때에는 《자유총련맹》패거리들을 《박수부대》로 써먹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자유총련맹》의 한 나부랭이도 청와대 행정관이 《국회시정연설》에 방청으로 참가할 인원수와 명단을 알려줄것을 요구하면서 박근혜가 연설을 하면 환성을 지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하였다.

당시 《국회》에 나타난 박근혜역도는 40여분간 《시정연설》이라는것을 하면서 력사교과서《국정화》와 로동개악 등 인민들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을 받는 반역정책들을 극구 정당화하였다. 청와대는 바로 여기에 극우보수단체의 어중이떠중이들을 가득 들이밀고 분위기를 돋구어 괴뢰역도의 정책이 마치도 민심의 지지를 받고있는듯이 냄새를 피웠다. 이것은 하나의 사실자료에 불과하다.

현실은 박근혜역도가 《유신》독재자로 악명을 떨친 제 애비의 비렬한 통치수법을 본따 온갖 음모적인 방법과 기만술수로 인민들을 우롱하면서 반역《정권》을 유지해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극우보수단체들의 괴뢰정권지지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준것도 다름아닌 청와대이다. 알려진데 의하면 청와대것들은 《전국경제인련합회》를 내세워 극우보수단체들에 필요한 활동자금을 계속 대주면서 그것들을 반역정책실현에 적극 써먹었다. 실례로 2014년부터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전국경제인련합회》의 대기업관계자들과 주기적으로 《지원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재정지원을 줄 보수단체들과 그것들에 대한 지원액수를 정해주었다. 여기에는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이 참가하군 하였다고 한다.

이런 《지원회의》가 진행될 때마다 사기가 오른 《어버이련합》을 비롯한 극우보수단체의 악질깡패들은 당국의 반인민적악정을 반대하고 반역《정권》을 규탄하는 진보민주세력의 집회, 기자회견을 비롯한 각종 활동을 악랄하게 방해하군 하였다.

이 무지막지한 보수떨거지들이 굴욕적인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투쟁현장에 몰려가 《종북》세력은 물러가라고 란동을 부리고 애어린 자식들을 잃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을 《시체장사군》, 《북의 지령을 받은 빨갱이》로 조롱, 모독하다 못해 분향소를 습격하는 짱패짓도 서슴지 않은 사실 그리고 통합진보당강제해산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마구 헐뜯고 로동시장구조개악에 항의하는 민주로총의 시위투쟁을 가로막는 악행을 부린것 등은 박근혜와 청와대것들의 배후조종에 따른것이였다.

이것이 폭로되자 남조선 각계는 《있을수 있는 일인가.》, 《용서할수 없는 범죄》라고 하면서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금 벌어지는 박근혜탄핵반대집회와 그와 관련된 자금출처도 청와대와 재벌들과 련관되어있을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김기춘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전국경제인련합회》를 강박하여 울아낸 돈을 박근혜역도의 퇴진을 요구하는 초불집회에 대항하여 맞불집회를 벌리고있는 보수단체들에 주었다는 사실이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밝혀졌다. 보수단체깡패들은 지어 김기춘을 직접 찾아가 《왜 약속한 돈이 제때에 들어오지 않느냐.》고 제법 호통까지 쳤다고 한다.

제반 사실들은 지금까지 극우보수단체들이 괴뢰당국의 반역정책을 지지하는 너절한 망동에 열을 올리고 반공화국대결과 《종북좌파세력척결》을 줴쳐대며 란동을 부려온것이 모두 박근혜역도와 청와대의 음모책동에 따른것이였다는것을 명백히 립증해주고있다.

뒤에서 이런 더러운 흉계를 꾸미고도 박근혜역도는 《초불시위자들보다 맞불집회자들이 더 많다.》느니, 《고생을 무릅쓰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니 가슴이 미여진다.》느니 하는 넉두리질을 해대고있다. 세상에 이런 악마같은 년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박근혜역도는 파렴치한 민심기만놀음을 작작 하고 권력의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인민들의 대중적투쟁에 의해 박근혜패당은 물론 청와대가 던져주는 몇푼의 돈을 받아먹으며 괴뢰역도를 비호두둔하는 역겨운 망동을 일삼던 극우보수떨거지들도 비참한 종말의 신세를 면치 못할것이다.

엄 수 련

박근혜《정권》퇴진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단결과 협조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보도된바와 같이 최근 제28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가 에티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에서 진행되였다. 54개 동맹성원국 국가 및 정부수반들과 고위급대표단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아프리카동맹위원회 위원장은 회의개막식에서 한 연설에서 에티오피아와 민주꽁고, 꼬뜨디봐르, 모잠비끄, 딴자니아, 르완다를 비롯한 나라들에서 급속한 경제발전이 이룩된것을 평가하였다. 그는 13개 아프리카나라들이 2017년에 아프리카의 단일항공시장을 창설하는데서 주도적역할을 하기로 공약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회의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아프리카동맹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며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창설준비를 다그칠데 대한 문제 등이 토의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국제형사재판소가 개혁되지 않는 경우 아프리카나라들이 재판소창설에 관한 로마규약에서 집단탈퇴할데 대한 제안을 적극 지지하였다. 그들은 분쟁방지, 경제적통합, 이주민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대륙나라들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이보다 앞서 도미니까공화국의 동부도시에서는 제5차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국가공동체 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개막에 앞서 꾸바혁명의 지도자 피델 까스뜨로에게 경의를 표시한 참가자들은 공동체의 주요창시자들중의 한사람으로서 지역의 통합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여온 그의 공적을 추억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꾸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 무역, 금융제재를 종식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식량안전을 강화하며 불평등을 없애고 교육을 장려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동체가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확인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아페크) 성원국들과 기타 나라들사이의 새로운 무역틀거창설이 제안되고 아프리카의 통합 및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론의가 진행된것을 비롯하여 국제적으로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가일층 심화되고있다.

이것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제국주의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자주적발전의 길로 나아가려는 발전도상나라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연장이다.

지난 수세기동안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진 국제질서를 리용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의 풍부한 원료와 자원을 마구 략탈하였다. 오늘날에도 날로 심각해지는 경제 및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로를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에서 찾으려 하고있다. 《원조》를 미끼로 발전도상나라들을 회유기만하는 한편 내정간섭을 일삼으면서 분쟁과 내란을 사촉하고 어부지리를 얻으려 하고있다.

그러나 오늘 발전도상나라들은 외세를 배격하고 자체의 힘으로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면서 낡은 국제질서에 의한 제국주의자들의 착취방식을 더는 허용하려 하지 않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이 국제무대에서 발언권과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고있다.

아프리카나라들은 정치적통합을 실현하여 대륙전반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자체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세계에 과시하고 단합된 력량으로 지역문제해결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고있다.

지난해에 있은 제17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는 자주성을 지향하여 나아가는 발전도상나라들의 움직임의 뚜렷한 증시로 된다.

성원국들은 미국 등 서방렬강들의 지배주의정책과 분렬리간책동을 규탄배격하고 단결과 협조, 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들에서 의견일치를 보았다. 또한 유엔이 안전보장리사회에 더 많은 나라들을 받아들이고 발전도상나라들의 자결권을 더욱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라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면 자주권이 위협당하고 경제적발전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깨달은 많은 발전도상나라들이 지역적 및 대륙적범위에서 안보체제구축을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아프리카동맹이 분쟁문제해결에서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주둔을 완강히 반대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방위분야에서 성원국들사이의 호상협력과 지역의 안전보장을 자기 활동의 목표로 내세우고 투쟁하고있다.

이 과정에 신흥경제국들이 빠른 속도로 경제장성을 이룩하여 세계적인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몫이 비할바없이 커지고있다.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여있는 발전도상나라들이 세계적인 무역액장성에서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이 단결과 협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고있는것은 자주화된 세계를 지향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수립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려는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제국주의자들이 세계를 쥐락펴락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오늘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며 번영과 진보를 이룩해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발전도상나라들의 투쟁은 앞으로 더욱 힘차게 전개될것이다.

본사기자 손 소 연

첨예화되고있는 필리핀－미국관계

필리핀과 미국사이의 관계가 버그러지고 있다.

최근 미국방성이 필리핀과 2014년에 체결한 방위협력확대협정에 따라 이 나라에 무기고와 병영을 건설하고 활주로, 철길을 부설할것이라고 발표한데 대해 필리핀이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필리핀대통령 드테르테는 미국의 조치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위험을 조성하게 될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는 어느 한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지금 필리핀에 무기들을 끌어들이고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미군에 통지문을 보냈다. 나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미국이 필리핀의 3개 주에 무기들을 끌어들여 영구보존하려 하고있는것은 량국사이에 체결된 협정에 대한 엄중한 위반행위이다, 무기고들이 건설되는 경우 이미 체결된 조약들을 재점토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보다 앞서 그는 44명의 경찰특수부대 성원들을 포함한 60명의 희생자를 낸 2015년충격사건의 배후에 미중앙정보국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알려진것처럼 필리핀에서는 지난해 6월 드테르테정부가 수립되였다. 필리핀에서 대통령선거전이 한창 진행되고있을 때 미국은 이 나라 주재 자국대사를 내세워 《인권문제》를 걸고 대통령후보인 드테르테를 비난하게 하였다.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드테르테를 짝아내려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하자는것이였다.

그런데 미국의 기도와는 달리 드테르테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였다. 이렇게 되자 미국은 이번에는 필리핀이 마약범죄자들에 대한 《불법적인 처형》을 일삼고있다는 여론을 확대시키면서 필리핀을 《인권유린국》으로 몰아붙였다. 이와 함께 필리핀에 대한 공격용소총판매계획을 철회하였다. 필리핀경찰이 마약단속을 계기로 사람들을 비법적으로 살해한다는 리유에서였다.

현재 필리핀정부는 반마약투쟁을 강도높이 벌리고있다.

검사출신인 드테르테는 20여년동안 다바오시 시장으로 있으면서 마약과의 투쟁을 강화하였다. 그는 대통령선거때에도 마약과의 전쟁을 벌리겠다는것을 공약하였으며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마약범죄자들과의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리였다. 이 과정에 수많은 범죄자들이 숙청되거나 자수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필리핀정부의 반마약투쟁을 문제시하면서 이 나라에 압력을 가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리핀대통령은 《필리핀은 더이상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것이라고 선언하는 등 강경태도를 취하고있다. 그는 미국과의 관계를 종국적으로 단절할것이라고 시사하기까지 하였다.

이를 통해 필리핀과 미국사이의 의견대립이 현 드테르테정부가 발족하면서부터 시작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주목되는것은 필리핀이 미국의 잠재적인 적수인 로씨야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길로 나아가고있는것이다.

얼마전 필리핀국방상은 자국군과 로씨야군사이의 호상방문 및 훈련참관을 허용하는 내용의 안보협력이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말하였다. 그 일환으로 지난 1월 2척의 로씨야함선이 필리핀의 마닐라항에 기항하였다. 목적은 필리핀군과 테로분자 및 해적들을 소탕하기 위한 공동작전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필리핀대통령은 로씨야해병들은 가장 고대하던 손님들이라고 하면서 로씨야함선들이 임의의 시각에 그리고 얼마든지 오래동안 마닐라항에 정박할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필리핀은 로씨야를 친선적인 대국, 동맹자로 보고있으며 보다 긴밀한 군사협조문제를 론의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필리핀이 대미리탈움직임을 보이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로씨야와의 협력강화를 강하게 시사한것이다. 로씨야함대가 필리핀에 기항한것은 두 나라사이의 군사협력이 실천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보여준다.

미국이 이에 신경을 곤두세우고있다.

필리핀이 미국을 멀리할수록 동남아시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지배권이 약화될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필리핀이 로씨야와 계속 군사협력강화의 길로 나간다면 미국은 오랜 동맹자를 잃게 되며 나아가서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실현에 커다란 장애가 조성될수 있다. 이로부터 미국은 동남아시아지역에서의 세력권확대에 구멍이 뚫릴것을 우려하여 필리핀에 무기고를 건설할것을 획책하는 등 이 나라에서 영향력을 의연히 행사하려 하고있다.

여론들은 앞으로 필리핀과 미국사이의 관계가 순탄치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 속국처럼 여기고 강권과 전횡을 부릴수록 이 나라 인민들의 더 큰 분노와 반발을 자아낼것이라고 전하고있다.

본사기자 김 수 진

미국의 침략무력증강책동

미국이 침략무력증강책동에 계속 광분하고 있다.

밝혀진데 의하면 2일 미국방성은 군수독점체인 록키드 마틴회사로부터 《F-35》계렬의 전투기 90대를 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여기에 수십억US$의 막대한 자금이 탕진되게 된다.

【조선중앙통신】

ㄱ-710223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